

ECONET WAY

꿈을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 happiness together

Vol.017 / December 5, 2006

크라스키노 농장에 황금을 파종한 모습. *Scutellaria Field at the Kraskino farm.*



ECONET WAY Vol. 017 / December 5, 2006

발행인 이병훈 / 발행처 (주)남양 / 편집기획 (주)남양 에코넷기업본부 / 편집 오경아 / 편집·디자인 Intercube Design / 인쇄 정광인쇄(주)
Publisher Bill Lee / Published by Namyang Company / Editing and planning by ECONET Corporate Center, Namyang Company / Editor Kyeongah Oh
Editing & design by Intercube Design / Printed by Jeonggwang Printing Co., Ltd

ECONET Special
02 > 2007년을 바라보는 CEO 메시지

22 > 특집기사 얼어붙은 겨울 땅에 희망의 불꽃 피우기 II

26 > 테마캠페인 12월 서번트 리더십 테마칼럼

- ECONETIAN
- 30 > 2006 에코넷 하이난 캠핑 워크샵 1 에코넷 미국
 - 36 > 2006 에코넷 하이난 캠핑 워크샵 2 유니젠 한국
 - 40 > 익스트림 여행팀의 모험 유니젠 미국의 VIP 고객 Schiff사 사장 EAST 방문기
 - 44 > 고고 우리부서 유니베라 한국 교육부
 - 48 > 우리집으로의 초대 유니젠 한국 김동식 사장님
 - 52 > 칭찬릴레이 열두번째 주인공 김미란 연구원, 천연물연구팀, 유니젠 한국
 - 56 > 칭찬 릴레이 열한번째 주인공 데이브 폴맨, DBA 프로그래머, 에코넷 미국
 - 60 > 다른 사람에게 여유를 조금 나눠 줄 수 있나요

Culture & Life

- 62 > 재활용을 몸소 실천하는 유니베라 미국 문화
- 66 > 가보고 싶은곳 오레건 해안은 감각을 즐겁게 한다.

- Info
- 70 > 헤드라인 뉴스 靑江 李然浩 회장 10주기 추모음악예배
 - 74 > ECONET News Network
 - ECONET 자회사 소식
 - ECONETIAN 신입사원 소개
 - ECONETIAN 경조사 안내
 - ECONETIAN 생일자 소개
 - 94 > 사진콘테스트 10월호 사진 당첨자 & 12월호 사진 응모 안내
 - 102 > 12월호 퀴즈 & 10월호 퀴즈 당첨자 안내
 - 104 > 에코넷웨이에 바란다.



ECONET WAY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 happiness together
Contents



- ECONET Special
- 04 > Messages from CEOs Welcoming the Year 2007
 - 24 > Features Making Flowers of Hopeful Spring Bloom in a Frozen Winter Land II
 - 28 > Theme Campaign Servant Leadership Theme Column for December
- ECONETIAN
- 33 > Hainan Camping Workshop for ECONET, 2006 ECONET USA
 - 38 > Hainan Camping Workshop for ECONET, 2006 Unigen Korea
 - 42 > The Adventures of the Extreme Touring Team
EAST Visit by Unigen USA's VIP client, CEO of Schiff
 - 46 > GO! GO! Our Division Education Department. Univera Korea
 - 50 > Welcome to My Home Don Kim, CEO, Unigen Korea
 - 54 > A Relay of Praises
12th Star, Researcher Miran Kim, Natural Product Research Team, Unigen Korea
 - 58 > A Relay of Praises 11th Star, Dave Coleman, DBA Programmer, ECONET USA
 - 61 > Is There Room For More?

- Culture & Life
- 64 > We Recycle! Univera USA Puts Recycling into Action
 - 68 > Place to Visit Oregon Coast Delights the Senses
- Info
- 72 > Headline News Memorial Music Service for the 10th Anniversary of the Passing of the Late Chairman Yeonho Lee
 - 74 > ECONET News Network
 - ECONET Subsidiary News
 - ECONETIAN New Hires
 - ECONETIAN Congratulations and Condolences
 - ECONETIAN Birthdays
 - 94 > Photo Contest Winners of the October Contest & the Themes for the December Photo Contest

- 102 > December Quiz and Winners of the October Quiz
- 104 > Story Suggestions for ECONET Way



CEO's Message

Messages from CEOs Welcoming the Year 2007

이병훈 총괄사장
Bill Lee, Chairman & CEO

2006년은 ECONET이 탄생한 지 30년이 되는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지난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 전한다는 창업이념에 충실했던 에코네시안들의 우직스러움에 큰 자부심과 고마움을 느낍니다.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 서로 위로하고 다독거리며 슬기롭게 이겨냈던 순간들, 크고 작은 성취에 보람을 함께 나누며 웃음짓던 시간들, 처음 약속과 다짐이 세월이라는 비바람에 퇴색되고 희석되려 할 때 서로 채찍질하며 마음 추슬렀던 일들, 모두 에코넷이라는 영화에서 편집될 수 없는 명장면이었습니다.

지난 30년과 다름없이 앞으로도 보다 나은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 전할 수 있도록 ECONET은 끊임없이 도전할 것입니다. 30년 전에는 오직 알로에만이 자연의 혜택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과학적인 연구와 각고의 노력으로 다양한 천연물에서 추출한 신소재들로 변모하고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신소재들은 인류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다양한 제품으로 개발되어 판매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궁극적으로 인류에게 진정한 행복을 제공하려는 ECONET의 이념이자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꿈은 지난 30년의 땀과 눈물로 일궈낸 ECONET만의 차별화된 구조적 기반 위에서 반드시 현실로 이뤄질 것임을 확신합니다.

에코네시안들에게는 열정과 노력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 역시 소중합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참여로 수립되는 ECONET의 글로벌 전략들이 열정과 추진력, 그리고 섬김의 정신으로 하나 둘 결실이 맺어지는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의 자아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얻어진 결과물들은 형평의 원칙으로 공정하게 나눠져야 할 것입니다. 꿈을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가 완성되는 ECONET의 미래 30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07년 새해 첫 날,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30년 역사를 향해 전 세계 에코네시안들은 힘찬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어느 해보다 뜻 깊은 역사적 대장정에 앞서 저는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큰 성취를 기원합니다. 평화와 사랑으로 ...

The year 2006 is the 30th anniversary of ECONET. I am very proud that ECONETians made a lot of efforts to stay true to our mission, "Bringing the benefits of nature to humankind." ECONET has had its share of rough times, but we've managed to overcome those obstacles wisely. We've had numerous worthwhile moments, as well as times when our original resolutions faded with time. But we have withstood all those moments and they make us what we are today.

ECONET, just as it has been doing for the past 3 decades, will always strive to bring the benefits of nature to humankind. Thirty years ago, the only product we thought matched our goals was aloe. Through continuous research, we've come to include a wide range of new materials extracted from natural resources. These new materials will be developed in various products that enhance the health and beauty of humankind. ECONET's ultimate goal goes beyond the business of selling products. It is the proliferation of happiness. And we believe the effort we've invested in the chase of this dream has given us a platform to make it come true.

Not only is a result of ECONETians' hard work important, but also its process is crucial. ECONET's global strategies are established with the wisdom and participation of us all. We believe the process of achieving these goals step by step shapes our identity. Also, we believe the benefits obtained in the process should be distributed equitably. ECONET wishes to provide a happy working environment.

On January 1st, 2007, ECONETians worldwide will take their first step towards the making of a new history. I wish you all the best health, happiness, and success in this most significant year for us all. Peace and love ...



데렉 홀, 부회장, 에코넷 미국
Derek Hall, Vice Chairman and CEO, ECONET USA

존경하는 에코넷 가족 여러분

에코넷은 세계적 기업으로서 매우 성공적이었던 2006년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성공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가령 2006년 에코넷은 미국에서 매출을 크게 향상시켜 1억 달러를 돌파하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판매 수익도 동시에 크게 증대되어 그 결과 부족했던 R&D 투자도 확대시킬 수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을 개선하고 새로이 증설도 했으며 세계적으로 시장을 더욱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2006년은 제가 회사 안팎으로 많은 새로운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그 분들과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에코넷은 남양 알로에, 오아시스 생명 과학을 국제적 기업인 유니베라로 성공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세계인들에게 우리 에코넷이 진정한 세계적 기업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또한 기업 및 개인적 차원에서 서번트 리더십을 경영의 핵심 도구로 삼아 전사적으로 이러한 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007년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무엇이며 우리는 2006년의 여세를 이어 보다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2007년에는 2단계 전략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고 세계적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 개발 및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강화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질 높은 제품 생산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곧 건설될 숲과 습지대로 둘러싸인 환경 친화적인 첨단 에코넷 사옥은 매우 오랫동안 미국 에코넷 가족들에게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옥 공사는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매일 매일의 공사에 필요한 재정 자원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5단계로 진행되게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바람과 비전은 에코넷이 품질이나 전문성 뿐만이 아닌 기업의 선의와 뛰어난 인재로 더욱 잘 알려진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꿈꾸는 에코넷은 여러분의 발전과 상상력 그리고 혁신을 도모하며 종종 기업 운영에 끼어들어 결국 구성원간의 의심과 동요를 유발하는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렇듯 매우 바람직하고 누구나 꿈꾸는 기업 사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 모두가 각자 맡은 바를 충실히 하는 에코넷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Dear Fellow Econetians

We are concluding a very successful 2006 as a global corporation. Success, of course, can be measured in many ways, for instance, in 2006 as a global team we grew our sales revenues and broke through the \$100 million barrier in the US. Profit revenues also grew to an all time high thus allowing for much needed investmen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improvements to existing facilities, development of new facilities, and expanded global penetration.

On a personal note, 2006 was a year in which I came to know many new and interesting people both within and without the ECONET, some of which I came to love dearly and with whom I will cherish that new relationship for many years to come.

We successfully announced to the world that we are indeed a global entity as we successfully aligned Namyang Aloe with Oasis Life Sciences creating a global entity called Univera. We also announced boldly that we have adopted Servant Leadership as a corporate and personal management tool to instill the culture throughout the ECONET.

So what lies ahead in 2007 and how in the world can we continue to do better than the previous year?

The year 2007 will see our Phase II strategy move into high gear as we further establish ourselves as a global entity. Our penetration into new geographic markets will be the result of thorough market research and will

be accompanied by effective and meaningful products backed by the same world class research and proven safety and efficacy.

In the USA we expect to break ground on a new 'state of the art' ecologically friendly campus nestled in a small forest of trees and wetlands that will provide a long term home for the US based Econetians. The campus will be developed in four or five phases to ensure our ability to utilize the space and most importantly, to allow us to fund the campus without straining the financial resources required to run the day to day operations.

My personal desire and vision is that the ECONET family of companies becomes known not only for its quality of product and its science but most of all, for its corporate goodness and its outstanding people. I envision a business environment that provides for each of us to invent, imagine and innovate, lacking the politics that so often creep into a business society, and which ultimately creates suspicion and unrest among all.

My hope is that we may each do our part to develop this very desirable and much sought after business society.



김영환 사장, 유니베라 한국
Youngwhan Kim, President & CEO, Univera Korea

큰 희망과 열정으로 2007년을 새롭게 맞이합니다. 2006년은 여러모로 참 뜻있는 한 해였습니다. 에코넷의 모기업인 남양알로에는 창사 30주년을 맞았고, 에코넷의 phaseⅡ가 성공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남양알로에와 미국의 오아시스는 '유니베라'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첫 천연물 건강기능식품인 '리제니케어·K'와 천연물 화장품 브랜드인 '리니시에'가 성공적인 시작을 했습니다. 이 천연물 신제품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깊은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셨으며, 2006년 유니베라 성장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은 고객의 신뢰와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몸소 확인하는 기회였습니다. 많은 것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려와 걱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기대 이상으로 성공의 발판에 안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지난 30년 동안 세계적인 알로에 전문기업으로 차근차근 쌓아온 신뢰가 새로운 천연물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데 커다란 기반이 되어준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이러한 고객의 신뢰를 더욱 확고히 하여 더 큰 세계적인 천연물 전문 기업이 되기 위해 유니베라는 2007년의 핵심 경영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영업관점에서 고객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7년 영업정책의 주요추진 과제로 지속적인 성장과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활동형 유포(UP)의 수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고객관리는 활동형 유포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실행을 통해 고객관리 수첩 활용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UCS의 활용을 장려하여 고객 DB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둘째, 마케팅 관점에서 지속적인 브랜드파워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선 새로운 글로벌 사명인 '유니베라'의 인지도와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것입니다. 또한 올해에 이어 천연물 기능성 화장품과 천연물 건강기능식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여 세계적인 천연물 전문기업이라는 브랜드 파워를 높여갈 것입니다.

셋째, 전사적 관점에서 프로세스의 개선입니다. 이미 2006년부터 회사의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점검하고 재정립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니베라는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고객지향적인 조직이 될 것입니다. 특히 BSC를 통한 성과관리는 조직 및 인적 역량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중장기 전략 목표의 달성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넷째, 신뢰와 대화의 리더십 교육의 강화입니다. 성실과 존중, 경청을 기본으로 하는 서번트 리더십 교육을 도입하여 실천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관점에서 글로벌 천연물 연구 기업으로 토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난 7월 발대한 CAP 3기는 이미 연구 소재를 알로에에서 천연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11월에 열린 '국제 천연물 심포지엄'은 글로벌 천연물 기업으로서 유니베라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적인 천연물 연구 토대를 구축한 사전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30년의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 첫 걸음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일 수 있었던 것은 유니베라 임직원 모두의 열정과 든든한 에코넷의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힘차게 달려온 지난 30년보다 더 큰 보폭으로 달려나갈 준비를 합니다. 많은 준비를 해온 만큼 더 많은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당당한 유니베라, 에코넷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I welcome 2007 with great hope and enthusiasm. 2006 was a deeply meaningful year in many ways. Namyang Aloe, ECONET's mother company, greeted the 30th year of its founding, and ECONET's phase II got off to a flourishing start. Korea's Namyang Aloe and the U.S.'s Oasis LifeSciences become one under the new banner of 'Univera.' Our first natural product for health enhancement, RegeniCARE·K®, and our natural botanical cosmetics brand L'initie were successfully launched. There have been avid faith and support from many for our new natural products, and this provided the fuel for Univera's growth in 2006.

All of these endeavors confirmed for me the utmost importance of the faith and trust of our customers. Although there were anxiety and apprehension at starting so many new projects, I believe that we have arrived at a successful footing surpassing even our own expectations. I am convinced that the trust we have been building consistently over the past 30 years as a world-class aloe company has provided a solid foundation for our evolution into a new natural products company.

To further cement the trust given to us by our customers and make our leap to an even bigger, world-leading natural products company, Univera, has set the following core management strategies for 2007:

First, we will reinforce customer management from a sales perspective. This is a key pursuit in our sales policy for 2007: in order to ensure continued growth and increase our sales revenue, the number of proactive UP (Univera Planners) must be increased. Customer management is a prerequisite for becoming a proactive UP. To meet this objective, we will boost the utilization of customer management notebooks through systematic training and practice. In addition, we will encourage the use of UCS in building a customer database.

Second, we will consistently strengthen our brand power from a marketing perspective. First and foremost, as our new global mission, we will continue to elevate Univera's image and worldwide recognition. Also, we will carry on our success from 2006 by continually launching natural high-

performance cosmetics and natural health foods to enhance our brand power as a global enterprise specializing in natural botanic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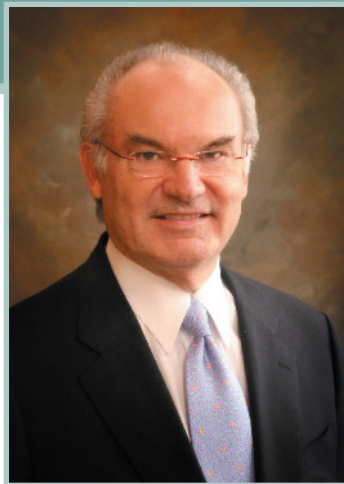
Third, we will improve our processes from a company-wide perspective. The work of examining and revamping our company's processes and systems has already been underway since 2006. Through this endeavor, Univera will be reborn as a highly efficient, customer-oriented organization. In particular, performance management through BSC will enhance the capacities of our organization and personnel to enable the accomplishment of our mid- to long-term strategic goals.

Fourth, we will reinforce leadership training based on trust and dialogue. We will make 2007 the year in which we introduce servant leadership training and put this philosophy into practice.

Lastly, we will strengthen our foundations as a global natural products R&D company from a research point of view. The third generation of CAP, launched in July 2006, has already expanded its research materials from aloe to natural botanicals in general. In addition, the International Natural Products Symposium, which took place in November, afforded an early opportunity for Univera to raise its status as a global natural products company and build a worldwide foundation for research on natural materials.

We have now taken our first step in our journey for the next 30 years. The reason why this first step could be so secure and successful is because it was supported by the passion of Univera's entire staff and executives and by the dependable network of ECONET. We are getting ready to move forward at an even faster pace than we have over the past three decades. We have made numerous preparations, and it is my sincere hope that Univera and ECONET will proudly go on to initiate even more changes as we spurt into the future.

김영환



스튜어트 오킬트리, 사장. 유니베라 미국
Stuart Ochiltree, CEO, Univera USA

2006년은 유니베라 미국으로서는 기념비적인 한 해였습니다. 전년 대비 50% 증가라는 놀라운 판매기록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신규 Associate과 고객들이 수 천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신제품 'Ageless Essentials'가 제품 라인에 추가돼 남녀노소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영양음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6년은 남양알로에 창립 30주년이자 유니베라로 사명이 변경된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올해 8월 오아시스(Oasis Life Sciences)는 유니베라 미국(Univera Life Sciences)이 되었으며, 방문판매 업계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유니베라 한국과 손잡게 되었습니다.

유니베라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조직 운영 시스템과 인력을 재편하고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등 크고 작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산적한 과제를 처리하는 와중에도 주문 및 지불 작업에 있어 철저하게 시간을 엄수하였으며, 영업 부분에 있어 헌신적인 서비스 정신을 발휘하였습니다.

유니베라 연례회의는 영업과 신규 Associate 모집 부문에

서 성공적이었으며, 유니베라의 행보에 있어 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 전략 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유니베라가 나아갈 방향이 구체적이고 분명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문화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며 2007년에도 그러한 기업문화를 보다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유니베라의 가족으로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열정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모습 보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함께 노력할 때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꿈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공동의 노력, 팀워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올해에 이어 2007년 또한 모두에게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 will be another record year for Univera, USA with sales growth 50% over 2005 and comparable increases in adding thousands of new sales associates and customers. We also added an important new product to our line called Ageless Essentials, which strengthens our ability to provide a highly effective nutritional drink for all ages.

2006 also marked the exciting opportunity to be part of the 30th anniversary and transition ceremony of Namyang Aloe (Korea) to Univera (Korea). In August of 2006, Oasis LifeSciences also became Univera LifeSciences (USA) and we are proud to join Univera (Korea) as a major global brand in the direct sales industry.

The fast growth of Univera also created many challenges as we adapted systems, Human Resources and even our office configuration to support the needs. Despite the challenges, our employees supported the sales organization with on time orders, on time checks and a commitment to service. I thank every employee for their dedicated efforts during this period.

Our annual convention was, by all accounts, a total success in the sales and recruiting since that point

would support that conclusion giving us great confidence in 2007 and the future.

Looking ahead, we have completed a comprehensive strategic plan for 2007 which provides a road map of priorities and focus for next year and beyond.

Last, but not least,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our culture and how our Univera family is part of the global family of the ECONET and pledge to strengthen and grow that culture in 2007.

I thank you all for what you have done in 2006 and what you will do in the future. Together we can do good things and fulfill the opportunity to make our work a positive and productive part of our lives. Team work makes the dream work!

I wish you all a happy, healthy and blessed holiday season and look forward to a wonderful 2007.

With warm regards.



김영태 사장, 남양
Youngtae Kim, President, Namyang

2007년을 맞이하며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라는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이루기 위해 전세계 곳곳에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에코넷 가족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특히 에코넷 전략 2단계를 실행하는 첫해로 2006년 한 해 동안 소중한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남양 임직원 모두에게 깊이 감사합니다. 2006년은 남양의 독자적 경영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한 기간이었으며 이를 위해 6-Sigma, ERP, GMP, 비율경영 등의 관리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맞이할 2007년은 불확실성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2단계 사업확대 전략을 더욱 견고히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남양의 독자적인 경영모델의 안정화를 통해 관리체계의 확립을 이룩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영혁신 차원의 6-Sigma를 더욱 확대하여 핵심경쟁력의 인프라로 확립해야 합니다. 지난해 생산현장 위주의 추진을 전부서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객관점에서 전 부문의 혁신을 통한 업무 효율성 및 품질을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을 실현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는 경영혁신 활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둘째, 경영시스템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ERP안정화, GMP운영의 현

실화, 비율경영 확립 및 지속적인 프로세스 업그레이드를 완성하는 하는 것입니다. 중복적인 업무를 단순화시키고, 형식이나 관행적으로 진행되어온 업무를 개선하며, 새로운 환경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성시키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역량 있는 인재확보와 인재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미래를 위한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와 기업간 경쟁격화,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뛰어난 인재가 기업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재발굴 체계를 정비하고 육성을 위한 교육체계를 보다 강화할 것입니다.

넷째, 지속적인 의식변화와 조직문화의 정착입니다. 기업의 미래는 개개인의 창조적인 의식 변화가 필수입니다. 또한 남양 구석구석에 녹아있는 우리의 좋은 기업문화를 발굴하여 정착시켜야 하며, 서번트 리더십을 생활화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한결같은 마음으로 ‘꿈을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로서 ‘작지만 강한 기업’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합시다. 이를 통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좀 더 풍요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룰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큰 꿈을 갖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갑시다.

At the Cusp of 2007

To all of our ECONET family, who are working tirelessly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to realize our precious dream of ‘bringing the benefits of nature to humankind,’ I wish you joy and happiness.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express my profound appreciation to the entire staff and executives of Namyang, who spared no effort or sacrifice in achieving our valuable goals in 2006, the first year of ECONET’s second strategic phase. 2006 was a year in which Namyang evolved its distinctive management model, and one that was dedicated to establishing new management systems, such as 6-Sigma, ERP, GMP, and proportional management, to this end.

In the coming 2007, we must further cement our continued growth and second-phase business expansion strategy even amid uncertain conditions. For this purpose, the new year must be a time for securing Namyang’s management system through the stabilization of our distinctive management model.

First of all, we must augment 6-Sigma, which we have been pursuing since last year for management innovation, to the level of a solid infrastructure for our core competitiveness. Its implementation was geared toward the production floor in the past year; in 2007, it must be expanded to all divisions and departments. We must develop it into a management innovation activity that maximizes profit by improving business efficiency and product quality throughout all sectors from the customers’ point of view and achieving customer satisfaction through increased productivity.

Second, we must build a firm foundation for our management system. We must complete our continuing efforts at stabilizing ERP, actualizing GMP operation, establishing proportional management, and implementing process upgrades. In 2007, we will streamline redundancies,

improve work that has been carried out merely as formalities or conventions, and perfect a system capable of immediately responding to new environments.

Third, we will actively promote the procurement and cultivation of talented personnel. Of late, numerous businesses have adopted this same goal as their highest priority for the future. Indeed, with the advent of a knowledge-based economy, the intensification of corporate competition, and the unpredictability of the market environment, outstanding human resources have become the very essence of a company’s competitiveness. To this end, we will build a system for discovering new talent and further strengthen our training system for the cultivation of such talent.

Fourth, we must ceaselessly reinvent our mindset and establish our corporate culture. To ensure the future of a company, creative change in individual thinking is absolutely indispensable. In addition, we must discover and expand positive aspects of our corporate culture from all quarters of Namyang, and build a company in which Servant Leadership is practiced as an everyday value.

Let us all join together with one heart in working to create a ‘small but strong company’ that is a ‘happy workplace where dreams are shared.’ Through this endeavor, I hope that we may further enrich our lives in both material and spiritual ways. I believe that a person who does not have dreams is also incapable of realizing them. But we ourselves have dreams. Let us all nurture big dreams and stride confidently toward them.



피터 하퍼만, 사장, 알로콥 미국
Peter Hafermann, President & CEO, Aloecorp USA

알로콥 미국의 2006년을 돌아보며

2006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알로콥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판매 기록이라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알로콥 미국 가족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알로콥 미국을 최고의 알로에 베라 공급업체로 인정해주는 고객들의 신뢰 덕분입니다.

올해에는 많은 새로운 가족들이 알로콥 미국과 함께 했습니다. 저 또한 2007년 1월이 되면 이곳에 온지 벌써 1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2006년은 개인적으로나 업무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또한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진 뛰어난 알로콥 미국 직원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는 2007년부터 시작하게 될 알로콥 비즈니스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유기적 성장을 도모하고 전략적 인수합병을 이루어냄으로써 시장에서의 입지와 역량을 한층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을 보다 확대하고 알로에 농장 운영에 주력할 것입니다. 더불어 토지와 용수를 포함한 멕시코에서의 알

로에 농장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여 기상 이변에 대비할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의 알로에 베라 잎을 확보하여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로콥 미국은 핵심 고객 마케팅을 통해 주요 알로에 성분 사업 부문을 보다 확장할 것이며, 시장에 완제품을 제공함으로써 밸류 체인을 구축해 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알로에 성분 전문 공급업체로서는 얻기 힘든 제조업체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미국 내에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은 이 모든 과정의 밑바탕이 되고 있으며, 구성원 모두가 회사와 일상생활을 통해 목표와 이상 그리고 행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끝으로 올 한 해 동안 알로콥 미국 가족들이 보여준 성원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미국과 한국 에코넷 가족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07년에도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Aloecorp USA Reflections and Aspirations

As 2006 comes to a close at Aloecorp USA, we are extremely proud to report that the year will close at a record sales level for the company. This is a result of our dedicated employees and the confidence our customers have in Aloecorp USA as a premier Aloe vera ingredient supplier.

We have had many new employees join Aloecorp USA this year. I, for one, will have completed my first year with the company in January 2007. It has been a very eventful year for me personally and professionally. I am very grateful to be here and to be part of a wonderful group of talented employees who have such a truly committed, passionate work force!

During the year we completed a Strategic Business Plan for Aloecorp USA which is to commence in 2007. This plan sets in place a future which encompasses organic growth and strategic acquisitions positioned to bolster our market share and capabilities. The plan also calls for Aloecorp USA to expand its focus on international sales and on our farming operations. A push to secure more farming resources in Mexico, including land and water supply, will allow the company to ensure ongoing business in the event of challenging weather conditions. And secondly, it will allow us to achieve larger Aloe vera leaf mass to enhance productivity overall.

We are also forecasting growth in the core ingredients business through a targeted approach of key customers, as well as planning to build the value chain by offering finished products to our customers. This will allow us to capture more upstream value than we would otherwise be able to extract as an ingredient supplier. And in this regard, we are pursuing several initiatives within the USA. Supporting all this development is our continued focus on Servant Leadership as a driving force for a culture in which we can all share purpose, dreams and happiness within the company and in our everyday practices.

In closing, I would like to thank all of the Aloecorp USA employees for their support, hard work and commitment this year. And I would like to extend sincere appreciation to everyone within ECONET USA and KOREA for their support in 2006. Finally, I wish all of you, and your families, the very best this holiday season and the very best for 2007.

Sincerely yours,



김동식 사장, 유니젠 한국
Don Kim, President & CEO, Unigen Korea

저에게는 2006년이 에코넷의 새 가족으로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라는 사명과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매우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또한 ECONET의 모기업인 유니베라가 창업 3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한 해였으며, 에코넷 제 2도약의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2007년에는 우리의 업(業)과 꿈을 이루는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일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성장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덕승재(德勝才)'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채근담(菜根譚)에 보면 "덕(德)은 사업의 바탕이니 기초가 단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집이 오래 간 적이 없느니라. 덕승은 재능의 주인이요, 재능은 덕성의 노복이다. 재능이 있어도 덕성이 없으면 주인 없는 집안에 노복들끼리만 살림살이를 하는 것과 같을 것이니 어찌 도깨비가 놀아나지 않으리요."라는 '덕이 재주를 이긴다'라는 의미입니다. 덕은 나만의 이익과 요구보다는 남도 같이 생각하면서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덕은 많은 사람을 이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협력자로 만듭니다. 앞으로 기업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나만의 기술과 능력이 아닌 협력자의 질과 양으로 승부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기본이 '덕(德)'이라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듯합니다. 자기계발과 덕을 쌓는데 더욱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또 하나의 에코넷 기업문화인 서번트 리더십과도 일맥상통하는 덕목입니다.

2007년에 유니젠 한국은 이러한 덕과 서번트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세가지 과제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 핵심연구개발 능력 배양입니다. 파이토로지스(Phytologix)와 지노엑티브(GenoActiv)를 통한 더 많은 천연식물 정보축적, 임상실험과 파이프라인의 다양화입니다.

둘째, 해외영업망 확대입니다. 그 동안 유니젠 미국과 유니베라의 공조를 통하여 해외영업망의 초석을 다져 왔으며, 이제는 아시아 지역에도 우리의 좋은 제품을 쓸 수 있도록 해외영업망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익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셋째, IPO준비입니다. 천연물 신약회사로의 도약을 위한 IPO를 준비하며 그에 맞는 인력과 조직 그리고 정보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힘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성과들을 지난 30년간 이루어 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창의적인 사고로 우리의 업(業)을 이루고, 서로 인화하여 힘을 모아가는 우리 에코네시안의 참모습을 다시 그려보며 새해를 맞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For me, 2006 was a very important year in which I learned to understand and appreciate the mission and culture of 'bringing the benefits of nature to humankind' as a new member of the ECONET family. It was also the year in which Univera, ECONET's mother company, celebrated the 30th anniversary of its founding and ECONET took its first steps in the second phase of its evolution. I believe that the coming 2007 will become a year for further cementing the foundations for our growth, so that we may come even closer to creating a happy workplace where we realize our calling and our dreams.

In seeking to strengthen our foundations, I am reminded of the phrase, 'Deokseungjae,' which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eamwork. Found in the old Chinese book, Chaegeundam, this phrase means that 'virtue surpasses talent': "Virtue is the basis of enterprise; no house has lasted without a solid foundation. Virtue is the master of talent, and talent is the servant of virtue. If there be talent without virtue, it is as if a household without a lord and master were being run solely by the servants. How, then, could such a house escape being overrun by evil spirits?" Virtue designates the pursuit of shared values, the consideration of others rather than one's own interests and demands. Virtue allows one to lead the many. And it moves the many to lend us their collaboration. In order to prevail in the competition among companies, we must achieve victory not simply by our own abilities and technologies but also through the quantity and quality of our collaborators. The idea that 'virtue' constitutes the foundation of enterprise seems to hold true as much today as it did in olden times. I urge you to commit yourselves to self-development and the cultivation of virtue. Such a pursuit also coincides with another aspect of ECONET's corporate culture: servant leadership.

In 2007, Unigen Korea will concentrate its energies on the following three tasks, on the basis of virtue and servant leadership:

The first is the cultivation of core R&D capacities. Through Phytologix™, and GenoActiv™, we will accumulate data on a wider variety of natural plants and diversify our clinical trials and pipelines.

The second is the expansion of our overseas sales network. Until now, we have been building the groundwork for our overseas sales network through cooperation with Unigen USA and Univera. It is now time to further expand our network so that the Asian region can also benefit from our superior products. This will enable us to overcome the limits of our growth and maximize our profits.

The third is preparation for IPO. As we prepare for IPO in making our leap as a next-generation pharmaceutical company specializing in natural botanicals, we must equip ourselves with the necessary human resources, organization, and informationization system.

Thanks to your contributions and ceaseless effort, we have achieved unprecedented results over the past 30 years. I now greet the coming year with renewed faith in the true face of ECONETians, who realize our goals with the spirit of challenge and creative thinking, and lend one another strength through mutual harmony.

Thank you.



리건 마일스, 사장, 유니젠 미국
Regan Miles, President & CEO, Unigen USA

에코넷 가족 여러분

유니젠 미국에 있어 2006년은 매우 성공적인 한 해였습니다. 유니젠 미국과 에코넷을 대신하여 가족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깊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판매실적이 두 배로 올랐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연구 및 테스트 기술을 갖추게 되었으며 새로운 가족도 영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오라클을 적용한 결과 기업 경영 시스템 또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팀원 여러분들이 이루어낸 성과를 이 짧은 글에 전부 담을 수는 없지만 이 기회를 빌어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2007년에도 판매실적 및 수익을 더욱 향상시키고 폭넓은 연구개발과 품질개선을 이루며 핵심인력을 보강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판매에 있어서는 해외시장 개척과 제품 다양화에 더욱 주력할 것입니다. 2007년은 특히 유럽 시장을 더욱 확대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유럽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주요 파트너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완료하고 보다 다양한 제품 판매에 힘쓸 것입니다.

2007년에는 시장에 공식적으로 우리 에코넷의 새로운 성분이 소개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대단한 잠재력을 가진 피부 미백제로 이미 많은 기업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구품질 부문에 있어 미용제품, 테크니컬 라이팅, 유기합

성에 인력을 보강하여 기술을 강화하고 기존 연구진의 기술을 더욱 확대, 심화할 것입니다. 약초 도서관 및 파이토로지스를 보다 개선하는 작업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테스트 기술 및 관련 장비도 보강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07년이 NMR의 해가 될 수 있을 까 하는 물음에 Qi Jia 박사는 매우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 실험부(Terry)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에코넷은 많은 임상 실험을 완료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신제품 출시 및 기존 제품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데 큰 과학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회계팀은 지속적으로 오라클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앞으로 에코넷의 IPO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운영 측면에서는 2006년을 통해 이룩한 향상된 성장세를 유지해 나가고 cGMP 및 오라클 시스템을 더욱 확대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해 동안 유니젠 미국 가족 모두가 보여준 끊임없는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더불어 세계 제1의 천연 제품 기업이라는 에코넷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에코넷 가족 모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Dear Fellow Econetians

Greetings and Happy Holidays from Unigen USA.

2006 has been a great year for Unigen USA. I wish to thank all of my co-workers for all their hard work and efforts on behalf of Unigen USA and the ECONET.

As a result of everyone's great efforts we have doubled our sales, added new research and testing capabilities and hired several key new team members. We also improved our management system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Oracle. The accomplishments of the team are far too many to list in this brief letter, but I do want to extend my heartfelt thanks to all for your great work.

Looking forward to 2007, we have high expectations and goals for further growth from a sales and profit standp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improved quality capabilities and key personnel additions.

From a sales perspective, we will focus on international expansion and product diversification. 2007 will be the year of European expansion. We will finish our European registration and sign licenses with several key partners to secure future strong growth in 2008 and beyond. We will also focus on selling new products from our extensive portfolio of products.

We have a couple of breakthrough compounds that will be introduced officially in 2007. One of these is an exciting novel skin whitener that shows great potential. We already have several major customers interested in this ingredient.

From the science and quality groups, we will be adding

personnel to strengthen our skills in cosmetics, technical writing, organic synthesis and adding breadth and depth to current groups. We will also continue to increase our plant library and improve the Phytologix process.

We will also be adding new testing capabilities and equipment.

Could this be the year of the NMR? Dr. Qi Jia is very hopeful about it.

Due to the efforts of our clinical trial department (Terry), we will see the completion of multiple trials. This will result in great scientific support to launch new product and further solidify existing products.

Our accounting group will be continuing to implement and develop the Oracle management system and will play a key role in the further development of our planned IPO.

From an operations standpoint, we will focus on handling the increased growth and further implementing cGMP and the Oracle system.

In closing, I once again thank the Unigen USA team for all of their great efforts and contributions to our success. I would also like to thank all of our fellow Econetians for their efforts on our behalf and towards our goal of making the ECONET the #1 company in natural products.

Sincerely,



구원모 사장, 유니젠 러시아
Wonmo Ku, CEO, Unigen Russia

2007년을 맞이하며

2006년 신년사를 쓴 게 엇그제 같습니다. 올해도 에코넷 가족이 보내주신 사랑과 관심으로 러시아 농장이 한층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면으로나마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2007년에도 꿈이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수확이 한창인 농장으로 가기 위해 블라디보스톡에서 슬라반카로 향하는 페리호에 차와 함께 몸을 실었습니다. 안개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는데 처음 러시아로 발령을 받고 낯선 땅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의 막막했던 기분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막막함은 안개 걷히듯 사라지고 찬란한 황금빛 햇살이 쏟아지는 목적지를 향해 씬 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에코넷 가족이라는 우리의 목적의식과 자부심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러시아 농장에는 수로공사, 대규모 파종, 수해 등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2004년에 처음 소규모 면적에 황금 종자를 실험 파종했습니다. 다음 해인 2005년 봄,

흑한외 겨울을 무사히 견뎌내고 환한 얼굴을 내민 황금을 보며 저도 모르게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때의 기쁨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비 피해로 어린 황금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또 한번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 절망감은 뭐라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우리의 생각도 황금과 더불어 자라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저 현재의 상황에 집착한 나머지 예지력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그 예지력은 어렵게 얻어지는 것이 아닌 듯 합니다. 진정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어디가 아플까, 언제 배가 고플까 혹은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들은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에코넷 가족 여러분, 2007년은 우리 가족 모두 진정으로 사랑하는 한 해가 되어 꿈을 함께 하는 우리의 일터가 좀 더 성장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신년사를 드립니다.

In Greeting 2007...

It seems only yesterday that I wrote my New Year's greeting for 2006. Thanks to the love and support of our ECONET family, our farm in Russia has become even more beautiful over the past year.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here in writing, and to sincerely wish you all both joy and health in 2007 as we continue to share our dreams in our happy workplace.

Journeying to the farm, where harvest was in full swing, I took my car and boarded the ferry boat from Vladivostok to Slavianka. The thick fog made it impossible to see even an inch ahead, and I recalled how utterly lost I felt when I took my first steps in a strange land after being newly transferred to Russia. But now, that feeling has vanished like a dispersing fog and been replaced by the tireless pursuit of a destination ablaze with brilliant, golden sunshine. I know only too well that the source of this strength is none other than the sense of purpose and pride we share as members of the ECONET family.

This year at the Russia farm, there were many events and incidents, including irrigation canal construction, large-scale sowing, and flood damage. We first test planted the seeds of Gold in 2004, over a small area of land. In the spring of 2005, after enduring the bitter cold of winter, the first shoots of Gold pushed their

shining faces above the ground-a sight that moved me to tears. The joy I experienced at that moment was beyond comparison. But this year, I shed tears once again as I watched the tender, fledgling Gold wither away in the torrential rain. The feeling of despair I felt then was beyond words.

I thought deeply and carefully. And belatedly, I realized that with each new year, our way of thinking had to mature alongside our crop of Gold. Fixated on the present, we had lost our ability to see into the future. It does not require extraordinary effort to acquire such foresight. If we had nurtured our charges with genuine love and caring, it would have been natural for us to ask how they might be suffering, when they might be hungry, or what they might need.

To all of our ECONET family, I hope that 2007 will become a year in which we nurture genuine love in our hearts, so that our happy workplace of shared dreams can grow to even greater heights. With this earnest hope, I bid you all a happy new year.



한상준 사장, 알로콧 중국 & 남양 중국
S.J Han, CEO, Aloecorp China & Namyang China

2006년은 알로에 사업과 일월만 개발 사업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먼저 알로에 사업에서는 50만 평 규모에 약 100만 주의 알로에를 재배할 수 있는 제 1/2농장 구축을 마무리하였으며, 약 400평 2층 규모의 중국 현지 법인 직원 숙소를 완공했습니다. 일월만 개발 사업에서는 베라 스파 리조트(가칭) 개발을 위한 세계적인 건축설계 회사 10여 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2000년 6월 중국 현지법인이 설립된 후부터 꾸준하게 준비해 온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7년에는 중국 현지법인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알로에 농장에서 원료를 가공하고 처리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세계 유일의 알로에 일괄 생산 공장을 완공할 것입니다. 또한 Wellness & Lifestyle 사업의 핵심인 베라 스파 리조트 시설물 구축 제 1단계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 계획들은 중국 알로에 업체와 치

열한 경쟁을 펼치며 열악한 건축 환경에서 세계 최고의 시설물을 건축해야 한다는 또 다른 도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2007년 중국 현지법인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역동성과 가능성을 보여드릴 것이며, 이러한 역동성과 가능성은 미래로 향한 진화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는 2015년까지 전 세계 에코넷 기업 중 최고 우량 기업이 되려는 중국 현지법인 임직원들의 다짐이자 약속입니다.

전 세계 에코넷 임직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조언은 큰 격려가 될 것 입니다. 저와 중국 현지법인의 모든 직원이 에코넷 가족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07년의 새로운 도전을 기다리며 ...

In 2006, there was visible progress in our Aloe business and the Riyue Bay development project. First in the Aloe sector, construction was completed on our farms No. 1 and 2, where approximately one million individual Aloe plants can be grown over an area of 500,000 pyeong(1,650,000 square meters), as well as on the 400-pyeong (1,320 square meters), two-story dormitory building for the employees of the Chinese office. For the Riyue Bay project, over 10 prominent construction and architectural design companies were select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Vera Spa Resort (tentative title). Such results are part of a series of steps that we have been continually working on since the Chinese office was established in June 2000.

In 2007, a new chapter will begin in the history of the Chinese office. To begin with, we will complete the world's very first one-stop Aloe production facility, where the raw materials produced on-site at the Aloe farm will be treated, processed, and turned into finished products. In addition, the first phase in the construction of facilities for the Vera Spa Resort, which constitutes the core of our Wellness & Lifestyle project, will be concluded. These plans also signify the beginning of a new challenge for us: we must prevail in the face of fierce competition from Chinese Aloe companies and build the world's finest facilities in a disadvantageous construction environment.

In the New Year, the Chinese office will demonstrate a completely transformed energy and potential. Such energy and potential will serve as the starting point in our evolution toward the future. This is the firm resolve and promise of our entire staff and executives, as we strive to build the Chinese office into the foremost company in the worldwide ECONET by 2015.

The interest and advice of all of our ECONET family around the world will provide us with great encouragement in our endeavor. On behalf of myself and everyone here at the Chinese office, I wish our ECONET family a very happy new year. May 2007 bring you much joy and happiness.

In eager anticipation of the challenges that 2007 holds in store ...

얼어붙은 겨울 땅에 희망의 봄꽃 피우기 II

구원모 사장의 러시아 개척기

2005년 봄 어느 날 영하 38도의 추운 겨울을 견뎌내고 다시 싹을 틔우는 황금을 바라보며 직원들은 감격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몇몇 직원들은 자그마한 황금 싹을 손으로 보듬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글 구원모 사장, 유니젠 러시아

1999년 11월 우리는 하물군 내의 벼와 콩을 재배할 수 있는 농지 8,400ha를 임대 계약했다. 임대지에서 재배된 벼 186톤을 수확하여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수확된 벼를 무상으로 기증했다. 향후 북한과 농산물을 물물 교역하는 사업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시기상조로 판단됐다. 또한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한 농산물 수입규제로 식량자원의 사업화는 시기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러시아 사업은 한랭지 약초를 재배할 수 있는 제2농지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농지 확보를 위해 현지의 여러 지인들을 만나 자문도 받았다. 이런 과정에서 서로 다른 언어와 사회 체제 때문에 생긴 가치관과 의견 차이를 조율해야 했다. 현지의 행정업무를 직접 처리하기 위해 러시아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법인장이 파견되었다. 그 외중에 기존에 도움을 주었던 지인들과 관계를 끊어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농지를 찾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하루 1,400km이라는 강행군 속에서 연해주 농지발견 대장정 2년만인 2002년 초에 드디어 하산군의 크라스키노 농장을 찾을 수 있었다. 크라스키노 농장은 기후적으로는 한국의 강원도 고산지역과 비슷해 한랭지 식물재배가 가능하고, 역사적으로는 발해사와 고려인 이주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지역이었다. 우리는 서둘러 해당 지역의 물류, 인력확보 가능성, 토질조사, 영농과 비즈니스 네트워크 형성 등 다각도로 조사한 뒤 영구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2004년 10월 러시아 연방법 중 토지법에 영구임대는 정부기관만이 가능하고, 기타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영구임대권은 49년 임대로 전환한 뒤 토지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3년 이상해야만 농지소유권을 신청할 수 있는 개정법이 제정됐다.

크라스키노 지역에 임대한 땅은 35년 이상 농지의 기능을 상실한 곳이었다. 토양은 산성화되어 잡초들만 자라고 있었고, 수로는 붕괴되어 제 기능을 잃은 지 이미 오래였다. 오직 야

생 짐승들만이 보금자리를 틀고 있는 농지 아닌 농지였던 것이다.

풀어야 될 숙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러나 이미 해외에서 척박한 땅을 일구어 옥토로 바꾼 영농 경험을 가진 우리에게 불가능이란 없었다. 총괄 사장님의 진두 지휘 아래 우리는 단계적으로 농지 살리기에 돌입했다. 토양을 숨쉬게 만들고, 물길을 잡아주고, 콩, 밀, 귀리 등 지력 향상을 위한 식물을 재배하여 갈고 뒤집기를 거듭했다. 이와 더불어 에코넷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가시오가피, 에크네시아, 베리류, 과수 등 작물의 실험재배도 진행했다.

그러던 중 2004년 유니베스틴의 개발은 러시아 농지 2,150ha의 개발 방향을 결정지었다. 유니베스틴의 주 원료인 황금(Scutellaria bicallesis)을 최대한 활용하는 농장의 개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었으며 바로 황금의 실험재배에 돌입했다. 2005년 봄 어느 날 영하 38도의 추운 겨울을 견뎌내고 다시 싹을 틔우는 황금을 바라보며 직원들은 감격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몇몇 직원들은 자그마한 황금 싹을 손으로 보듬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 소식은 즉시 본사의 총괄 사장님께 전달되었고, 모든 에코넷 가족에게 퍼져나갔다. 그렇게 러시아 농장에 심어놓은 우리의 원대한 꿈은 비로소 그 싹을 틔우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제는 대량생산이 과제였다. 2005년에는 더 큰 면적에 황금이 파종됐다. 숨을 쉬지 못하던 땅이 숨을 쉬자 긴 시간 땅 속에서 잠들어 있던 각종 야생풀들이 황금과 함께 땅 속에서 올라왔다. 인공적으로 재배되던 황금 종자들이 거친 야생의 잡초들과 치열한 생존 경쟁을 펼쳐야 했다. 어린 황금의 생존을 돕기 위해 우리는 그 넓은 밭에 팔을 걷어붙이고 들어가 끈질긴 잡초들과 한 판 대결을 벌였다.

황금은 우리의 사랑과 노력을 저버리지 않았다. 새로 파종된 황금은 2006년 봄에 다시 싹을 틔우며 대지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황금은 겨울 내내 땅 속에서 수많은 경쟁자들과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른 뒤 승리의 미소를 보여준 것이다. 2006년 다시 자라난 황금 싹들 가운데 잡초의 수는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



알로에로 신화를 창조한 에코넷의 힘은 이제 곧 황금신화 창조로 이어 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2006년 봄 우리는 에코넷 기업들이 사용할 황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240ha에 황금을 확대 파종하였다. 또한 황금을 가공하기 위한 공장 부지를 확보, 농장의 기초 인프라 구축, 지역 사회활동 등에도 많은 시간과 재원 그리고 열정을 투자했다. 현지 신문에서는 유니젠 러시아를 우수영농 기업으로 선정하여 에코넷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기대를 대변했다.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하더니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즈음 수해가 찾아왔다. 올 여름 끊임없이 쏟아지는 비로 90ha에 달하는 황금이 고사하고 말았다. 텍사스 농장의 시련이 우리에게도 찾아온 것이다. 한동안 하늘만 원망하던 우리는 그 동안 다양한 상황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측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또 점검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황금신화의 창조를 위해서는 기초 인프라의 완성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2007년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다. 우리는 또 다시 봄을 기다리며 실험포 황금의 수확으로 2006년을 마무리하고 있다. 한 뿌리, 한 뿌리 다치지 않도록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는 심정으로 뿌리를 캐고 흙을 털어낸 뒤 건조 작업을 하고 있다. 농작물에 대한 이런 무한한 사랑과 세심한 돌봄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며, 이는 에코넷 수직계열화를 지탱하는 힘이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생명사랑, 자연사랑, 인간사랑의 참모습이며 2007년에 있을 기초 인프라의 완성도 이런 기본적인 경쟁력 강화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분명 2008년에는 크라스키노에 반드시 황금신화가 찾아올 것이다.

유니젠 러시아 법인의 설립과 성공적인 황금 재배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Making Flowers of Hopeful Spring Bloom in a Frozen Winter Land II

President Wonmo Ku's Russian Campaign



One day in the spring of 2005, our staff could not help being deeply moved at the sight of the new sprouts, which had pushed their way out of the earth after enduring a harsh winter in which the temperature had dropped to 38 degrees below freezing.

By Wonmo Ku, CEO, Unigen Russia

In November 1999, we signed a lease for 8,400 hectares of agricultural land in Horol for the growing of rice and beans. We harvested 186 tons of rice from the land and donated it to areas that were suffering food shortages. Thereafter, we debated the feasibility of a food barter trade with North Korea, but determined that such a project was yet premature. With the additional restrictions imposed by the Korean government for the protection of domestic farmers on importing agricultural produce, it was decided that the commercialization of food resources required a time readjustment.

As a result, the focus of our Russian business was shifted to the acquisition of secondary land for the growing of medicinal plants native to cold climates. Many local contacts were consulted on the possibilities of finding suitable land. In the process, conflicts of values and opinions arising from differences in language and social systems had to be calibrated. The company established a local office in Russia and a new head of Russian operations was appointed to handle administrative work generated locally. In the midst of such changes, we were forced to take the painful step of severing relations with people who had previously given us help.

It was no easy task to find the necessary land. In early 2002, two years into an extensive and rigorous land-finding

mission in Primorsky Province that covered 1,400 km each day, we finally found Kraskino Farm in Hasan. In terms of its climate, Kraskino Farm resembled the high-altitude regions of Korea's Gangwon Province, making it conducive to the cultivation of cold-weather plants. Historically, the area had been the site of Balhae and home to settlers from Goryeo. We hurriedly examined the region from a wide range of angles, including distribution & logistics, the possibility of procuring manpower, soil quality, and the formation of agricultural and business networks, and signed a permanent lease.

In October 2004, the Russian Federation's land laws were amended to allow only government agencies to sign permanent leases. The new restrictions stipulated that permanent leases held by businesses and individuals must be converted to 49-year leases; only after conducting activity suited to the land's intended use for three years or longer could such lessees apply for ownership of the land.

The land we leased in the Kraskino region had not served its function as agricultural land for over 35 years. The soil had increased in acidity and was overrun with weeds. The irrigation canals had caved in and were a long way from working properly. Agricultural land in name only, it was a forgotten place where wild animals had made their homes.

There was a mountain of problems to be solved. But to us, who already had overseas farming experience cultivating arid land and converting it to fertile soil, nothing was impossible. Under the leadership of our chairman, we embarked on reviving the land in stages. We enabled it to breathe, dug waterways, and repeatedly grew and overturned crops such as beans, wheat, and oats that were suited to improving fertility. At the same time, we test cultivated crops like E. senticosus, echinacea, berries, and fruit trees that ECONET companies needed.

Then in 2004, the development of Univest in determined the future direction of the 2,150 hectares in Russia. A master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farm that would allow us to make maximum use of it for the growing of 'Gold' (Scutellaria baicalensis), the main ingredient in Univest in, was established and we immediately embarked on the test cultivation of this crop. One day in the spring of 2005, our staff could not help being deeply moved at the sight of the new sprouts, which had pushed their way out of the earth after enduring a harsh winter in which the temperature had dropped to 38 degrees below freezing. Some even had tears brimming in their eyes as they tenderly caressed the small, fragile shoots of Gold. Straightaway, the news was dispatched to our chairman back at headquarters, and soon it spread to the entire ECONET family. This was the first germination of the grand dream that we had planted at the Russia farm.

The next problem was mass production. In 2005, Gold was planted over a much wider area. When the land began to breathe once more, all kinds of wild vegetation that had long lain dormant in the earth came crowding to the surface. The artificially planted seeds of Gold were forced to wage a fierce war of survival against tough and hardy weeds. To help the tender Gold pull through, we rolled up our sleeves, entered the expansive field, and fought our own battle against the tenacious weeds.

Our love and efforts were not in vain. The newly planted Gold sprouted again in the spring of 2006, showing their fresh, green faces above the ground. After fighting a silent war under the earth against countless competitors all through winter, it had finally shown us its smile of victory. Among the new crop of Gold that sprouted in 2006, the

number of weeds was dramatically reduced. The delight we experienced was beyond description.

We felt sure that the power of ECONET, which had created its own legend with Aloe, could be relived through the creation of a new legend of Gold. In the spring of 2006, to ensure an ample supply of Gold to all ECONET companies that needed it, we planted the crop over an additional 240 hectares. We also invested much time, money, and passion into acquiring land for a factory to process the Gold, building basic infrastructures for the farm, and participating in services for the regional community. The local newspaper bespoke the high expectations the local community held for ECONET by designating Unigen Russia as an Outstanding Agricultural Business.

They say clouds always follow the sunshine: just when everything was going well, we were hit by a flood. In the endless rain that poured down this past summer, some 90 hectares of Gold withered away and died. The tragedy that had struck the Texas farm had come to us as well. It was only after blaming the skies for a good long while that we realized the truth: we had not prepared sufficiently against a broad range of scenarios. We checked and rechecked the list of things we absolutely needed in anticipation of various potential situations. Through this process, we reached the conclusion that for the creation of the legend of Gold, the completion of basic infrastructures was imperative.

Now, 2007 is just a stone's throw away. Awaiting yet another spring, we are wrapping up 2006 by harvesting the test crop of Gold. We are digging up each root, dusting it off, and drying it, as tenderly as if we were handling a newborn child. Our infinite love and painstaking care for our crops will continue always, and will become the force that supports the vertical hierarchization of ECONET. This is truly love of life, love of nature, and love of humankind, and the completion of basic infrastructures slated for 2007 is in line with the strengthening of such basic competitiveness. In 2008, the legend of Gold will surely be born in Kraskino.

I remain deeply grateful to everyone who lent us aid in the establishment of Unigen Korea and the successful cultivation of Gold.

12월 서번트 리더십 테마 컬럼

에코네시안은 스스로 실천하고 있다고 여기는 서번트 리더십의 가치에 대해 겸손한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서번트 리더십의 중요한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내 주변의 상대방들은 나에게 전혀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못하다고 느낄 수 있다.



글 김남규 팀장, 에코넷기업본부, 기획인사팀, 남양

2006년 12월 마지막 서번트 리더십 테마는 '겸손'입니다.

Phase II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실시했던 지난 2005년 하이난 워크샵에서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강의가 실시됐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선대 이연호 회장님의 창업정신과 삶을 통해 서번트 리더십의 소중한 씨앗이 이미 에코넷에 심어져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2005년 하이난 캠프 워크샵에서 얻은 작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에코네시안 모두가 에코넷의 역사 속에 숨쉬고 있던 서번트 리더십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서번트 리더십의 테마 캠페인이 연재되었다. 테마 캠페인은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작은 사랑의 실천', '작은 사랑에 대한 보답하기', '꿈의 대화', '개인목적의 정의', '경청', '공감', '친절' '꿈을 함께하는 행복한 일터 디자인하기', '행복한 가정을 위한 계획과 실천', '인내' 등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테마 진행을 통해서 얻은 한 가지 결론은 에코네시안은 스스로 실천하고 있다고 여기는 서번트 리더십의 가치에 대해 겸손한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번트 리더십의 원리는 단순한 데 비해 그 실천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서번트 리더십의 중요한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내 주변의 상대방들은 나에게 대해 전혀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못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과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야 한다.

테마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연재되면서 서번트 리더십이 에코넷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많은 에코네시안들에게 인식시켰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다양한 테마로 진행되면서 서번트 리더십의 키워드가 무엇인지 혼란스럽다는 회의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에코넷의 서번트 리더십의 추진을 총괄하고 있는 Culture Committee에서는 수많은 서번트 리더십의 가치 중에서 에코넷의 키워드로 정직과 성실(Integrity), 존중(Respect), 경청(Listening)을 선정하였다. 다른 많은 가치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서번트 리더십의 가치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잘 지켜나간다면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보다 일관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Themed Column: Servant Leadership

December 2006

We ECONETians need to maintain a modest attitude regarding the values of Servant Leadership that we feel we are putting to practice. We might personally think that we have sufficiently understood the core values of Servant Leadership and that we are exerting a lot of effort into realizing them, but those around us may feel that we are doing nothing of the kind.



By Namkyu Kim, Team Manager, Planning & HRMT, ECONET Korea

The theme of the final, December 2006 installment of the Servant Leadership column is ‘modesty.’

At the Hainan Workshop, which took place in 2005 for the discussion of Phase II strategies, the first official lecture on Servant Leadership was given. On this occasion, we learned that the precious seeds of Servant Leadership had already been sown in ECONET through the life and founding spirit of our former chairman, Mr. Yeonho Lee.

Based on the realizations of the 2005 Hainan Camping Workshop, the ‘Themed Column on Servant Leadership’ began as an opportunity for all ECONETians to reflect on and put into practice the values of Servant Leadership that have been living and breathing throughout ECONET’s history. From February through November of 2006, the column focused on such themes as ‘Practicing a Little Love,’ ‘Returning a Little Love,’ ‘Sharing Dreams,’ ‘Defining a Personal Core Purpose,’ ‘Listening,’ ‘Empathy,’ ‘Kindness,’ ‘Designing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s & Happiness Together,’ ‘Making Plans for a Happy Home and Putting Them into Action,’ and ‘Patience.’

One conclusion that emerged through the process of running the column is that we ECONETians must maintain a modest attitude about the values of Servant Leadership that we feel we are putting to practice. The principles of Servant Leadership are

fairly simple; by contrast, putting them into action is extremely difficult. We might personally think that we have sufficiently understood the core values of Servant Leadership and that we are exerting a lot of effort into realizing them, but those around us may feel that we are doing nothing of the kind. Therefore, we must never lose our modesty. Through endless self-reflection, we must strive toward even newer realizations and higher planes.

The continuation of the themed column has produced the positive result of bringing home the importance of Servant Leadership at ECONET to numerous ECONETians. On the other hand, the handling of diverse themes has generated uncertainty regarding what truly constitutes the keywords of Servant Leadership.

The Culture Committee, which oversees and promotes the implementation of Servant Leadership at ECONET, has designated ‘Integrity,’ ‘Respect,’ and ‘Listening’ as ECONET’s keywords among the various values of Servant Leadership. This is not to say that other values are not important. However, the values of Servant Leadership are all interrelated. If we faithfully fulfill these three essential keywords, we will achieve more consistent results in our thoughts and actions.

2006 에코넷 하이난 캠프 워크숍

2006년 10월 17일, 에코넷의 하이난 알로콥 제조 공장 및 베라스파 착공식 날 하늘에서는 색색의 종이기가 눈처럼 흩날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졌다. 이는 에코넷 전 가족뿐 아니라 하이난 주민들에게도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기회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하이난 기공식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워크숍 기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될 것이다.

글 커티스 브라이언, 정보기술 상무, 에코넷 미국



첫째 날

며칠 전 인천 공항에서 에코넷 이스트 가족들은 미국팀을 맞이했다. 중국 산야행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낮익은 얼굴과 낯선 얼굴들을 만날 수 있었다. 비행기에 오른 뒤 시애틀에서 서울까지 오랜 비행으로 지친 미국팀은 곧 잠이 들었다. 산야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구옥시 호텔로 이동하여 다시 편안히 잠을 청했다.

둘째 날

10월 16일 아침, 모닝콜과 가벼운 노크 소리에 잠이 깼다. 이전에는 한번도 사람이 직접 깨워주는 모닝콜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다행히 나는 이미 일어나 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푸짐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하이난 알로콥 농장으로 이동했다. 농장으로 향하는 길에 우리는 모두 하이난의 아름다운 경치에 흠뻑 취했다.

농장에 도착하여 좁은 다리를 건너(리전 마일즈의 그 유명한 다리 사건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캠프에 다다랐다. 길 양 옆으로 아름다운 야자수 나무들이 의장대처럼 우릴 맞이하고 있었으며, 야자수뿐만 아니라 하이난 팀은 우리를 위해 여러모로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

오후가 되자 하이난 지역의 문화, 역사 그리고 하이난 알로콥 설립에 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우리는 에코넷의 철학과 비전, 로드맵, 전략과 함께 자연에서 가장 좋은 것만을 인류에 선사하겠다는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또한 에코넷의 로드맵과 전략 대부분이 작년 하이난 전략 워크숍을 통해 수립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그날 저녁, 미국팀은 한 자리에 모여 에코넷의 비전과 서번트 리더십의 정신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 피곤에 지친 우리와 달리 웃음이 끊이지 않는 한국 에코넷 가족들의 넘치는 에너지는 놀라움 그 자체였다.

셋째 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하루 종일 시달린 내게 선선한 아침 공기는 달콤한 휴식처럼 느껴졌다. 모두들 모기장을 친 대나무로 만든 오두막에서 옆 사람의 코고는 소리를 라디오처럼 흘러 들으며 지난 밤 이야기를 나누느라 분주했다. 어떤 이는 자신이 코를 곤다는 사실을 처음 깨닫고 또 어떤 이는 끝까지 그 사실을 부인하기도 했다.

아침 시간은 서번트 리더의 의미와 '모두가 목적과 꿈 그리고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비전에 대한 것이었다. 에코넷의 창립자인 이연호 회장이 만들어낸 에코넷의 문화 유산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회사의 창립이념과 문화에 대해 들을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시간이었다. 이러한 훌륭한 가치관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곳이 에코넷 외에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점심 때가 되자 하이난팀은 고맙게도 우리 미국팀을 위해 맥도날드 빅 맥과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준비해줬다. 이병훈 총괄사장은 에코넷의 역사, 문화 그리고 기업의 나

1. 알로콥 중국 본 공장 기공식 장면
Groundbreaking ceremony for Aloecorp China's main production plant
2. 알로콥중국 농장에서 에코넷 웨스트 참가자들 기념촬영
ECONET West participants posing for a commemorative photo at Aloecorp China's farm
3. 에코넷 하이난 캠프 워크샵시 농장 대나무 숙소
The farm's bamboo lodging facility during ECONET's Hainan Camping Workshop



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 했고 우리는 알로에 농장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아침 세션은 이병훈 총괄사장의 연설과 그 내용을 어떻게 개개인의 업무에 적용할 것인가로 초점이 모아졌다.



1. 조별미팅하는 장면 Group meetings
2. 알로코프 중국 해변에서 On the beach at Aloecorp China

하이난 워크숍의 하이라이트는 하이난 알로에 제조 공장 및 베라스파 기공식이 있었던 저녁이었다. 이번 공사로 에코넷이 세계 최고의 알로에 제조 시설 및 리조트를 보유하게 되는 뜻 깊은 일이지만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가 하이난 만녕시에 거주하는 수 백 명의 사람들의 삶을 개선 시키는데 일조한다는 사실이었다.

넷째 날

농장 투어와 오후에 이어질 해변에서의 즐거운 시간에 대한 기대와 함께 시원한 아침 공기에 눈을 떴다. 두 시간 동안의 플랜테이션 투어를 통해 농장이 어떻게 건설되었는지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주변의 경치와 다양한 식물 그리고 기분 좋은 날씨가 투어를 더욱 즐겁게 만들었다. 캠프로 돌아가는 길에 해먹에 누워 모두들 잠시 휴식을 취하며 서로의 경험담을 늘어 놓았다.

오후에는 해변에서 수영과 발리볼, 축구를 하거나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날씨도 좋았고 바닷물이 열을 식혀주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저녁이 되어 미국팀은 짐을 싸고 한국팀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떠나기 바로 전 알로코프 가족들이 직접 따다 준 코코넛으로 신선한 코코넛 우유를 마실 수 있었다. 코코넛 나무를 타는 모습을 직접 봤는데 이색적인 경험이었다.

산야를 거쳐 서울로 돌아오면서 우리는 그 모든 경험과 2006 하이난 캠프 워크숍을 통해 본 아름다운 하이난의 정취와 새로 만난 친구들을 떠올렸다. 워크숍은 매우 유익했다. 알로에 제조 공장과 리조트의 착공식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뜻 깊은 경험이었다.

하이난 알로코프와 베라스파의 시작과 더불어 하이난 사람들이 그들의 꿈과 행복을 실현하고 삶을 변화시킬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에 웬지 모를 뿌듯한 마음으로 하이난을 떠났다. 공사 진행 과정을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이난을 방문하고 싶다. 골프장을 테스트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있다.

Hainan Camping Workshop for ECONET, 2006

Confetti poured from the sky and loud applause filled the air as ECONET celebrated the groundbreaking ceremonies of the Hainan Aloecorp Manufacturing Plant and the Vera Spa on the evening of October 17, 2006. What an exciting time for ECONET and the Wanning, Hainan, China region! These events will prove to be a milestone for the ECONET community and the people of Hainan providing new opportunities for growth and prosperity. Being a part of the groundbreaking ceremony was just one of many memorable moments during the trip to Hainan for the 2006 Hainan Camping Workshop.

By Curtis Bryan, Director of Information Technology, ECONET USA



Day 1

A few nights earlier, at Incheon Airport, the team from the U.S. was greeted by our friends and colleagues from ECONET East. As we assembled for the China Eastern Airlines flight to Sanya, China, we joined with many familiar faces as well as many we met for the first time.

Once seated on the plane, many participants from the U.S. quickly fell asleep, as we had already endured a long flight from Seattle to Seoul. In Sanya, we were quickly transported to the Guoxi Hotel and enjoyed a good night sleep.

Day 2

On the morning of October 16, we were greeted by wake-up calls and knocks on our doors (I’ve never experienced a wake-up knock before - luckily I was already up and ready to go). We enjoyed a generous breakfast and were soon on our way to the Hainan Aloecorp farm. Along the drive to the plantation, many of us were captured by the beauty of Hainan, which has been called the Hawaii of Asia.

We arrived at the plantation, unloaded the buses, crossed a narrow bridge over a river (we understand Regan Miles has a history with this particular bridge) and walked through the farm to reach the camp. As we walked into the camp’s grove of palm trees, we were struck by the beauty of the surroundings and grateful for the preparations the team in Hainan worked so hard to complete for us.

In the afternoon, we enjoyed learning about the Hainan area, culture, history and the establishment of Hainan Aloecorp. We discussed the philosophy, vision, roadmap and strategy of ECONET and our theme of bringing the best of nature to mankind. We reflected that much of the roadmap and strategy was established at this very spot one year prior, at the 2005 Strategy Workshop in Hainan.

That evening, the team from the U.S. met and discussed the ECONET vision and how we could apply Servant Leadership principles to our environment. We enjoyed listening to our colleagues from Korea performing cheers as part of their workshop sessions and wondered how they had so much energy (we were all very tired).

Day 3

We awoke to a cool morning, but it was a brief relief from the hot day. Many shared stories and laughed about their experiences of sleeping in the bamboo cabins, under mosquito netting, next to snoring neighbors. Some were made aware of their snoring habits; while others denied such accusations.

The morning session presented us with deep thoughts on what it means to be a Servant Leader and the vision to build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s and happiness together.” We viewed the legacy of the culture our company’s founder, Mr. Yunho Lee, established. It was a highly motivational and invigorating time to hear about the qualities and culture our company was founded upon. Where else can one work with such values?

At lunch, the team in Hainan provided the U.S. team with a generous gesture: McDonald’s, Big Macs, and Kentucky Fried Chicken!

Mr. Lee spoke to us that afternoon on the history, culture and direction of ECONET. We learned about the importance of the farm to family model. We left this session focused on the impact of his speech and how we can apply it to our jobs.

The pinnacle moment of the Hainan experience occurred that evening: the groundbreaking ceremonies for the Hainan Aloecorp Manufacturing plant and the Vera Spa. I was moved by how these projects will not only provide ECONET a world-class aloe manufacturing facility and resort, but more importantly, how many people’s lives will be positively impacted by this project. As Dr. Qi Jia and I discovered through a conversation with a Hainan Aloecorp employee, many people are experiencing a transformational improvement in their quality of life because of these ECONET projects. It occurred to me that this is really a philanthropic opportunity for ECONET: to improve hundreds, if not thousands, of lives in the Wanning city of Hainan.

Later that evening, half of our U.S. team left to return to Seoul, but not before we had some last-minute conversations and reflections on our experiences.

Day 4

Another cool morning greeted us with brief relief from

the heat and with anticipation of the day’s events: a walking tour of the plantation and an afternoon of fun and relaxation at the beach.

We spent over two hours on the walking tour of the farm, learned how the farm was established and enjoyed the beautiful scenery of the surrounding area, the vegetation and the weather. Upon our return to camp, the hammocks provided some relaxing moments and discussions about our experi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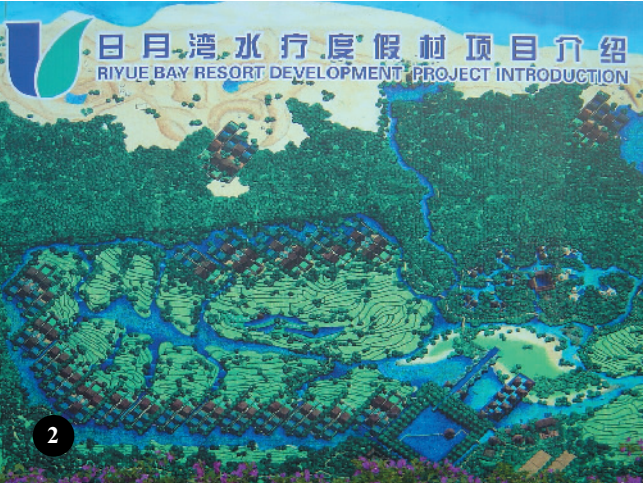
In the afternoon, we headed to the beach to enjoy a few hours of swimming, volleyball, soccer and conversations with our colleagues. The weather was beautiful and the water brought needed relief from the heat.

That evening, the rest of the U.S. team packed and said our goodbyes to our Korean friends and colleagues. Right before leaving, we all enjoyed a round of fresh coconut milk. An Aloecorp employee scurried up the trunk of the tree to get the coconuts and then prepared them for us - what a feat to see him climb up the tree and come back down!

As we journeyed back to Sanya, and eventually on to Seoul, we reflected on the incredible experiences, beauty and new friendships established at the 2006 Hainan Camping Workshop. The workshop sessions were motivating and insightful. We were privileged to see the groundbreaking ceremonies and plans for the resort and aloe manufacturing facilities.

Personally, I left Hainan excited to see the foundations of not only new beginnings for Hainan Aloecorp and Vera Spa, but also foundations of new beginnings for the people of Hainan, to give them a chance to meet their dreams, happiness and transform their quality of life. I look forward to returning to see the progress of the project. If the project needs someone to test the golf course, I’m available.

1. 알로컴 중국 본 공장 기공식 장면
Groundbreaking ceremony for Aloecorp China’s main production plant
2. 알로컴 남양 중국 베라스파 리조트 조감도
Bird’s-eye view of Riyue Bay Resort Development Project (Aloecorp & Namyang China’s Vera Spa Resort)



행복한 일터로 한걸음 내딛기

드디어 출발이다. 워크숍 기간을 어떻게 보내게 될지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산아행 비행기에 올랐다. 도착 첫날은 숙소 배정과 짐 정리를 했다. 숙소는 6인 1실로 각 방 안에는 모기장이 둘러쳐진 여섯 개의 야전 침대가 있었고, 그 위에 베개와 큰 목욕 수건이 잘 정돈되어 있었다. 식사는 한국식이었으며, 워크숍 기간 내내 시원한 음료와 다양한 열대 과일이 제공되었다.

글 장미라, 경영지원본부, 유니젠 한국

토론

‘Fun & Change’라는 주제로 준비된 이번 워크숍 기간 동안 참석자들은 ‘행복한 일터’를 위해 어떤 것들을 해야 하며, 무슨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교육을 받고 토론하는 시간들을 가졌다. 각 사의 참석자들을 골고루 섞어 여러 팀으로 나눈 뒤 각 팀의 이름, 구호, 상징 등을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평소에 알지 못했던 동료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다.

이 후 각 팀들은 스토리보딩 기법으로 행복한 일터를 위한 가장 중요한 생각을 큰 카테고리로 만든 후, 다시 그 생각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주제들을 만들어 냈다. 오랜 시간 동안

토론을 하면서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이 도출됐다. 이러한 토론 결과를 잘 반영한다면 ‘꿈을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로 한걸음 나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에코넷 미국 법인 참석자들도 개별적으로 모여서 토론을 했는데, 우리의 진지하고 열띤 토의 모습과 잘 정리된 토의 결과물을 보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팀별 토론을 마친 후에는 각 사별 토론으로 이어졌다.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제로 실천 가능한 것들을 토론 결과물로 내놓았다.



모두가 ‘그 분’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일한다면 ‘행복한 일터’는 더 이상 먼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토론이 끝나고 스튜어트 사장의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이 강의를 통해 정직, 존경, 경청, 믿음, 사랑이 서번트 리더십의 기본 바탕이라는 것을 배웠다. 이후 서번트 리더십을 주제로 긍정적 측면의 ‘그 분’과 부정적 측면의 ‘어떤 분’을 설정하여 역할극을 했다. 극 중 ‘그 분’과 ‘어떤 분’의 모습을 보면서 평소 닮고 싶어 동경했지만 다소 막연했던 ‘그 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었다. 역시 ‘그 분’과 ‘어떤 분’에 대해서는 모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모두가 ‘그 분’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일한다면 ‘행복한 일터’는 더 이상 먼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특별한 초대

워크숍 참석 셋째 날 하이난 알로콧의 공장과 앞으로 ‘유니베라 타운’으로 명명될 리조트의 기공식에 초대를 받아 참석했다. 총괄 사장님 외에 하이난 알로콧과 워크숍 참가 임직원들 그리고 만녕시 정부 관계자와 건물 설계자 등이 참석했는데, 기공식을 보면서 빠르게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는 에코넷의 미래를 볼 수 있었다. 넷째 날은 일월만으로 휴식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 곳이 바로 ‘유니베라 타운’이 들어설 곳이라고 했다. 아름다운 해변과 주변정경을 보면서 리조트가 하루빨리 완공되었으면 했다.

소감

참으로 즐거웠던 워크숍이었다. 이런 기회가 아니라면

East, West 에코네시안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하며 토론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며 농장체험 또한 어려웠을 것이다. 회사는 다르지만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니 결국 우리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함께 이야기하고 어울리면서 평소에 얼굴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과 좀 더 친숙한 관계가 될 수 있었다.

감사

꼼꼼하게 준비한 하이난 알로콧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곳곳에서 참석자들을 위한 빈틈없는 준비와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사흘이 지났을 때였다. 하루 일정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와보니 대충 개켜났던 이불이 새것으로 교체돼 있었다. 그리고 하루 세 끼 모두 한국식으로 차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워크숍 내내 시원한 음료와 과일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 주셨다. 무엇보다도 일월만에서 휴식을 가졌을 때 출발 전 모두 농장투어를 하는 사이 바닷가에 맘껏 즐길 수 있도록 그늘막이며 4륜 오토바이, 배구대, 축구대 등을 준비해 주셨던 것은 아마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준비하고 뒤에서 우리를 지원해주신 분들이 모두 현지 직원들이었다.

그들의 준비와 배려가 없었더라면 참석자들은 힘든 생활을 했을지 모른다. 아낌없는 배려와 봉사에 현지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이번 워크숍이 참석자 모두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기를 바란다.

One More Step toward a Happy Workplace

Setting off at last. I boarded my flight to Sanya half in anticipation, half in fear of how I would be spending the duration of the workshop. On my first day there, I received my room assignment and organized my belongings. Each room, made to accommodate six people, contained six cots surrounded by mosquito nets, with neatly arranged pillows and towels on top of them. The meals were Korean-style, and throughout the workshop, we were given cool beverages and a variety of tropical fruit.

By Mira Jang, Management Support Headquarters, Unigen Korea



Discussion

For the duration of this workshop, on the topic of “Fun and Change,” the participants engaged in education and discussion about what we must do, in what ways, to create and maintain a “happy workplace.” Participants from various companies were evenly distributed into teams, and each team made its own name, slogan, and symbol. Through this process, I was able to become

closer to coworkers I had not had the chance to meet before.

Afterwards, each team came up with a broad category expressing the most important idea for making a happy workplace, using storyboarding techniques, then identified more specific subjects about that idea. Over a lengthy discussion, a wide range of ideas and opinions were offered. If the results of this discussion are properly reflected, they would allow us to take one more step toward making “a happy workplace where dreams are shared.” Participants from ECONET WEST also got together for discussion; they spared no praise for our earnest and passionate attitude during discussion and for our well-organized discussion results. Following the team discussions, we engaged in discussions with coworkers from our own company. We thought together about what we could do within the company, and compiled those ideas that could be put into practice.

After the discussions came a lecture on servant leadership by C.C.O(Chief Cultur Officer) Stuart. Through this lecture, we learned that honesty, respect, attentiveness, trust, and love form the basic foundation of servant leadership. We then participated in role-playing exercises on the theme of servant leadership, positing an ‘esteemed person’ who demonstrated its positive aspects and a ‘certain someone’ who embodied its negative aspects. Seeing the ‘esteemed person’ and the ‘certain someone’ in



the play, I was able to picture the specific qualities of that ‘esteemed person,’ whom I had admired and wished to emulate but who had remained rather vague. Not surprisingly, everyone had similar notions about the ‘esteemed person’ and the ‘certain someone.’ If each of us keeps the image of the ‘esteemed person’ in our minds as we work, the ‘happy workplace’ we are striving for will surely be within reach.

A Special Invitation

On the third day of the workshop, I was invited to attend the groundbreaking ceremony for the Hainan Aloecorp plant and a resort that will be named ‘Univera Town.’ The event was attended by Chairman Bill Lee as well as the staff and executives of Hainan Aloecorp, the participants of the workshop, Wanning city government officials, and building architects. Watching the ceremony gave me a glimpse of ECONET’s future, making its rapid expansion across the globe. On the fourth day, we enjoyed a day of rest at Riyue (Sun and Moon) Bay, which we were told would be the site of ‘Univera Town.’ Taking in the beautiful beach and the surrounding landscape, I hoped that the resort would be completed speedily.

If each of us keeps the image of the ‘esteemed person’ in our minds as we work, the ‘happy workplace’ we are striving for will surely be within reach.

Thoughts and Impressions

It was a genuinely enjoyable workshop. Without such an opportunity, ECONETians from both East and West branches would not have had a chance to come together for conversation and discussion, nor would it have been easy to experience life on the farm. Although we came from different companies, hearing everyone’s opinions made me realize anew that we all shared the same goal. Talking and spending time together, I was able to build closer relationships with people whom I had only known in passing.

Words of Thanks

I would like to express my appreciation once again to the people at Hainan Aloecorp, who made painstaking preparations for the workshop. Everywhere I turned, I could feel their meticulous attention and scrupulous care. On our third day, when I returned to my room after the day’s events, I found that my blanket, which I had casually folded aside, had been replaced with a new one. Moreover, not only did they prepare three square Korean meals a day for us, but they also took pains to ensure that we did not lack for cold beverages or fruit throughout the workshop. Above all, I will never forget that, while we were on a tour of the farm before leaving for Riyue Bay for rest, they prepared shaded canopies, four-wheel bikes, a volleyball net, and soccer goals so that we may enjoy ourselves on the beach to our hearts’ content. The local staff members provided us with everything and gave us so much support. Without their care and consideration, we might have had a difficult time away from home. I thank the local staff members for their unstinted care and service, and hope that this workshop will be a wonderful memory for all who participated.



▶ 부루스 우드, 베라 우드, 리건 마일즈, 데브라 마일즈, 데렉 홀, 셸비 홀
Bruce Wood, Vera Wood, Regan Miles, Debra Miles, Derek Hall, Shelby Hall

익스트림 여행팀의 모험

글 리건 마일즈, 사장, 유니젠 미국

나와 나의 아내 데브라 마일즈, 유니젠 미국의 VIP 고객사인 Schiff Nutrition의 CEO인 브루스 우드와 그의 아내인 베라 우드, 데렉과 셸비 홀은 9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함께 아시아를 여행했다. 출발 이틀 전 브루스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자동차와 비행기로 이동해야 되는 빡빡한 여행 일정 때문인지 '익스트림 여행팀'이란 이름을 붙였다. 우리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지역을 둘러봤다.

9월 24일, 서울에서 여행은 시작됐다. 유니젠 한국의 김동식 사장이 가이드를 자청하여 이태원에서 쇼핑을 하고 청와대 근처의 갤러리도 방문할 수 있었다. 우드 부부는 집이 시애틀에서 아직 도착하지 않아 이를 핑계 삼아 새 정장을 여러 벌 장만하는 등 마음껏 쇼핑을 즐겼다. 김동식 사장은 우리 팀에 미술 작품을 선물했는데 우리 모두 소중히 간직하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저녁에는 이병훈 총괄사와 맛갈스런 한국 전통음식으로 식사하며 여행의 첫날을 기분 좋게 마무리했다.

둘째 날, 유니젠 한국과 남양을 둘러보았다. 특히 새롭게 리모델링한 유니젠 한국의 건물 외관 및 인테리어는 꽤 인상적이었다. 저녁에 우리는 하이난 섬으로 떠나기 위해 인천 국제 공항으로 발길을 돌렸다.

셋째 날 아침, 우리는 일찍 하이난 섬에 도착해 짧게 잠을 청했다. 하이난에서 우리의 안내를 맡은 안나에게 이번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우리는 산야 시내의 시장을 시작으로 하이난 알로콥을 둘러보았다. 알로콥에 도착했을 때 우리의 이번 여행 중 가장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여행 기간 중 내린 비로 인해 강이 넘쳐 다리가 물에 잠긴 것이었다. 알로콥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다리를 가까스로 건너 알로에 농장을 견학했다. 대나무 빨대를 꽂은 코코넛을 음료수로 제공되었는데 먹는 방법이 꽤나 재미있었다. 불행하게도 알로콥을 빠져 나가는 길에 나만 미끄러져 온몸이 물에 흠뻑 젖고 말았다. 모두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라 매우 신기했다. 이후 하이난 알로콥의 CEO인 한상준 사장과 함께 신축중인 건물을 둘러보았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매우 훌륭한 시설이었으며 하이난 캠퍼스의 완공된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다. 한상준 사장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우리는 다음 목적지로 떠나기 전 휴식을 위해 하이쿠로 향했다.



불행하게도 알로콥을 빠져 나가는 길에 나만 미끄러져 온몸이 물에 흠뻑 젖고 말았다. 모두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라 매우 신기했다.

넷째 날, 홍콩으로 향했다. 데렉과 셸비는 우리를 위해 홍콩에서의 여행 일정과 식사를 준비했다. 덕분에 가장 높은 곳에서 섬 전체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었다. 스탠리 마켓에서 쇼핑을 하고 이탈리아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즐겼다.

여행의 마지막 이틀은 다시 서울로 돌아가 에코넷 센터를 둘러보고 이병훈 총괄사장과의 만남으로 우리의 짧은 여행은 끝이 났다. 이번 여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에코넷 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우리 익스트림 여행팀은 이번 여행의 흥분을 가슴에 안은 채 벌써부터 다음 여행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The Adventures of the Extreme Touring Team

By Regan Miles, President and CEO, Unigen USA

During September 24th - 29th, I had the good fortune to travel through Asia with the Extreme Touring Team. The Team consisted of the CEO of Unigen USA’s #1 customer, Schiff Nutrition’s Bruce Wood and his delightful wife, Vera Wood, Derek and Shelby Hall and me and my wife, Debra Miles. About two days into our adventure, Bruce gave us the nickname of the ‘Extreme Touring Team’ (ETT) as a result of how much we traveled each day by car and plane. We covered a lot of territory in a very short time.

Our adventure started on the 24th in beautiful metropolitan Seoul, Korea. Don Kim, the CEO of Unigen Korea, was our host and we shopped in Itaewon and visited a gallery near the ‘Blue House’. The Woods’ luggage had not yet arrived from Seattle and they had fun shopping for new clothes. Several new suits were purchased. At the end of the afternoon, Mr. Kim was very gracious and gifted the ETT with original art pieces. They will be cherished by all. That evening we had a delicious Korean dinner with Mr. Bill Lee as our host. It was a great end to a fine first day.

On day two, we had the pleasure of touring Unigen Korea and Namyang Manufacturing. It was great to see the recent remodel of Unigen Korea. Both tours were very impressive and well received by all. The flowers given



On the way out I slipped and got wet in the river, everyone else successfully crossed the river. This was a first time experience for all.



by the hosts at both facilities were beautiful and enjoyed. After the tours that evening we headed to Incheon airport for our evening flight to Hainan Island, China.

On day three, we arrived at Hainan early in the morning and grabbed a quick night’s sleep. Our host in Hainan was Anna and she was delightful. Thank you, Anna. We started with a tour of a market in downtown Sanya and then headed to Hainan Aloecorp. When we arrived at Aloecorp, we experienced one of our most fun adventures. Due to the recent rains, the river had overflowed and the walking bridge was underwater. With the help of the Aloecorp associates, we successfully crossed the bridge by foot and explored the farm. Our hosts prepared coconuts for drinking through bamboo straws. On the way out I slipped and got wet in the river, everyone else successfully crossed the river. This was a first time experience for all. We then got to tour the new facilities being built with Jeff Hahn, the CEO of Hainan Aloecorp. The new facilities are very impressive and a great start to the Hainan campus. Thanks Jeff. We then headed to Haiku for a relaxing evening before our next adventure.

On day four, we headed to Hong Kong. Derek and Shelby had arranged a wonderful day of touring and great food. We were able to go to the top of the island and see the great view, shop at Stanley Market, and we enjoyed a wonderful Italian dinner.

On day five and six, we headed back to wonderful Seoul and a tour of the ECONET Center and a visit with Mr. Bill Lee. Then, we all headed home.

It was a great trip and many thanks to all of our fellow Econetians who made this a wonderful experience for all.

The Extreme Touring Team is looking forward to our next great adventure.

Go! 유니베라 한국 교육본부



글 박정아 기자, 고객지원팀, 유니베라 한국



서번트 리더십 실천본부, 교육본부입니다.

교육본부의 구성원 모두 서번트 리더십을 몸으로 실천하는 본부장이 바로 조준용 차장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표현해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위 사진처럼 본부장은 아래, 구성원은 위쪽에 있는 그림이 연출됐다.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함께 나누는 마음까지 묻어나는 듯 하다.

교육본부는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강사[교육팀]와 교육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교육기획담당자[교육기획팀]로 구성된다. 이런 일들은 모두 서번트 리더십이 그 바탕이 되고 있다. 직원과 대리점을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 기본이 되어야 효과적인 교육의 힘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기획팀은 대리점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UBA(Univera Business Academy) 교육과정을 설계, 도입, 운영까지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사실 방문판매 업계에서는 유니베라 교육과정에 대한 인기와 관심이 상당히 높다.

유니베라 한국의 빛나는 성장 동력이 되었던 인적 역량은 지금까지 꾸준히 성장해왔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 역량을 발휘했으며, 분명 미래에는 현재보다 더욱 큰 영향력을 보여줄 것이다. 인적 역량 키우기 대상은 대리점은 물론이며 본사의 임직원도 포함된다.

교육팀은 천연물 세계 최고 기업인 유니베라 제품(건강기능식품, 기능성화장품)을 소비자에게 전하는 대리점 가족을 위해 열심히 강의하고 있다. 최고의 제품을 최고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것을 가장 효과적인 강의기법으로 교육하고 있다.

교육본부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어요.

UBA 교육 담당자 전익표 사원, 영상물 촬영/편집과 제작 담당자 최영재 사원, 사내교육 담당자 민지희 사원을 팀원으로 모시는 교육기획팀 팀장 조용호, 건강을 전하는 정종희 대리, 석미경 대리, 이운진 대리와 아름다움을 전하는 이현주 대리, 이혜진 사원, 고정민 사원을 팀원으로 모시는 교육팀 팀장 김소연, 이들 모두를 즐겁고 기쁘게 하고 지원하는 교육본부 본부장 조준용.

교육본부는 멋진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유니베라 한국에서 멋진 외모를 가진 사람을 본다면 교육본부 소속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빠른 판단! 출중한 외모와 훌륭한 언어 구사력은 교육본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교육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은 역사를 바꾼다는 말이 있는데, 유니베라 한국의 미래는 교육본부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요?



Go! Go! Education Department

By Jeongah Park, CS Team Manager, Univera Korea



Introducing the Education Department, where Servant Leadership is Put into Practice

Everyone at the Education Department is of the unanimous opinion that the department head who most embodies servant leadership is Deputy General Manager Junyong Cho. Taken at this reporter's request to visually express this state of affairs, the photo above shows Mr. Cho positioned below the members of his department. The picture not only speaks through the image it captures, but also seems to express the heartfelt bond shared by everyone in the Education Department.

The Education Department consists of the instructors who personally carry out the education programs (Education Team) and education planners who design and operate such programs (Education Planning Team). All of this work is founded on the philosophy of servant leadership. Education cannot demonstrate true force and effectiveness without being firmly based on care and respect for both employees and dealerships.

The Education Planning Team has been admirably performing its work of designing, introducing, and operating programs for the Univera Business Academy (UBA), an educational program geared toward the fostering of dealerships. In fact, in the door-to-door sales industry, Univera's educational programs are the subject of much interest and popularity.

The human talent that became the driving force behind Univera Korea's remarkable growth has been developing consistently to this day. It effectively demonstrated its capacity, and will no doubt come through at an even greater caliber in the years to come. The cultivation of talent is an endeavor that includes the staff and executives of the main office as well as our various dealerships.

The Education Team is busily instructing our dealership family, who bring to customers the products (health foods, high-performance cosmetics) of Univera, the world's finest natural products company. It is only right that the best of products be brought to customers in the best of ways; the Education Team is imparting those ways using the most effective methods of instruction.

The People that Make Up the Education Department

UBA education specialist Ikpyo Jeon, creator / editor /producer of visual media Youngjae Choi, and in-company education specialist Jihee Min are led by Education Planning Team Manager Youngho Cho.

The purveyors of health, Assistant Managers Jonghee Jeong, Mikyeong Suk, and Yunjin Lee, and the purveyors of beauty, Assistant Manager Hyunju Lee, and Staff Members Hyejin Lee and Jeongmin Go are led by Education Team Manager Soyeon Kim.

All of these people are cheered, encouraged, and supported by the director of the Education Department, Junyong Cho.

The Education Department: Home to the Finest-Looking People

If you see someone with dashing looks at Univera Korea, it's safe to assume that he or she is part of the Education Department! The department's most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 is the extraordinary looks and remarkable eloquence of its members.

They say that education changes people and people change history. Then, wouldn't the hearts of everyone in the Education Department be where the future of Univera Korea begins?

우리집으로의 초대

김동식 사장 유니젠 한국

이번 '우리 집으로의 초대'의 주인공은 유니젠 김동식 사장이다. 부인과 아들 둘 모두 현재 미국 LA에 있어 집으로 방문하지 못하고 김동식 사장하고만 인터뷰했다. 그는 인터뷰 내내 가족사진과 연애시절 부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번갈아 보며 흐뭇한 표정을 짓곤 했다.



인터뷰 장미라, 경영지원본부, 유니젠 한국

가족과 떨어져 계시는데 외롭지는 않으세요?

외롭죠. 왜 안 외롭겠어요. 낮에 정신 없이 일하다가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와 불 꺼진 텅 빈 방 안을 보고 있으면 특히 더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집에 타이머가 있어서 자동으로 켜집니다.

가족이 보고 싶을 때는 언제였나요?

아플 때 가장 보고 싶습니다. 출장 가서 호텔에서 아플 때 굉장히 서럽더군요. 딱 한번 그랬었지만.

아들들이 가장 자랑스러웠을 때는 언제였나요?

둘 중에 하나만 말하면 서운하겠죠. (웃음) 큰 아이는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얘길 들었을 때 자랑스러웠습니다. 작은 아이는 지금 대학생인데

학교 미식축구팀 주장입니다. 경기장에서 아나운서가 우리 아이 등 번호와 이름을 불러주고 학교 친구들이 아들 이름을 부르며 응원하는 걸 봤을 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작은 아이가 중학교 졸업할 때 클린턴 대통령상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 가족은 그 상이 미국 대통령상이라는 것을 며칠 뒤에나 알았어요. 처음엔 학교장 이름이 클린턴이구나 하고 말았거든요. 나중에 찬찬히 상장을 살펴보니 미국 대통령상이더군요.

한의학 공부를 오랫동안 하셨다고 들었는데 가족들이 아파도 걱정이 없겠어요. 한의학을 공부하시게 된 계기라도 있으신가요?

내가 치료 받다가 직접 해보고 싶어서 시작했죠. 좋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급체나 경기(驚氣)를 일으켰을 때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은 운동하다 접질린 것도 고칠 수 있는 정도가 됐죠. 사람들이 낫는걸 보면 보람되고 기분도 좋습니다. 앞으로도 한의학 공부는 계속할 생각입니다. 이 일이 유니젠이나 에코넷과 무관하지 않거든요. 일과 방법은 달라도 큰 맥락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니젠으로 올 때도 쉽게 결정할 수 있었죠.

사장님만의 가족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는?

애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함께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가족에게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들이 어릴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잘 놀아주지 못했는데 아이들한테는 그게 가장 큰 불만이었나 봅니다. 지금은 본인들 각자 바쁜 생활을 해보니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가족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남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삶을 살아가!

사장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뤄지기를 바라며, 가족들과 매일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Welcome to My Home

Interview with Don Kim CEO, Unigen Korea



Interview Mira Jang, Management Support Headquarters, Unigen Korea



In this issue's 'Welcome to My Home,' we visit with CEO Don Kim of Unigen. We were unable to visit him at his place because his wife and two sons are currently living in Los Angeles; instead, we met Mr. Kim for a private interview. Throughout our conversation, he smiled with quiet contentment as he glanced alternately at a photograph of his family and a picture of him and his wife taken while they were still dating.

Do you feel lonely to be living away from your family?

Of course. How could I not? It's especially disheartening when I get back after a busy day at work to a dark and empty house. Fortunately, now I have a timer that automatically turns on the lights.

When do you miss your family the most?

I miss them the most when I'm sick. I remember feeling really miserable lying ill in a hotel bed during a business trip. It happened only once, though.

When did you feel proudest of your sons?

If I mention only one, it'll hurt the other one's feelings, right? (Laughs.) My eldest son works for a company, and I felt proud of him when he told me that he was garnering recognition at his work. The younger one, who is a college student, is the captain of his school's football team. When I went to see him play, it felt really great to hear the announcer call out his name and jersey number, and to see all his friends cheering for him. He received the Clinton Award when he graduated from junior high, but it took us several days to figure out that it was the U.S. president's award. At first, we just assumed that Clinton was the name of the school principal. Later, when we pored over the award certificate, we found out that it referred to former President Bill Clinton.

We heard that you've been studying traditional Korean medicine for a long time. Your family would have no worries even if one of them got sick. Was there a particular reason why you first took it up?

I was receiving treatment myself, when I decided that I would try my own hand at it. I was lucky to find a good teacher; it allowed me to keep up my studies all these years without giving up. The training came in really handy when my sons suffered acute indigestion or seizures as young children. Now I'm skilled enough to fix sprained wrists and ankles, and I intend to continue

with my studies.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s not unrelated to Unigen and ECONET, you know. Although their respective work and methodologies differ, I believe that they are part of the same broader context. That's why my decision to join Unigen Korea was an easy one.

Do you have any special activities that you share with your family?

I try to accompany my sons in whatever they like to do. I think that in itself is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my family. When my sons were little, I was too absorbed with getting ahead in life to devote much time to playing with them, and I guess that was their biggest complaint back then. Now that they have their own busy lives, they understand me better, they say. It made me really happy when they told me that.

Is there anything you'd like to ask of your family?

Live lives that are helpful to others!

We wish Mr. Kim success in everything he does, and hope that there will soon come a day when he can be with his family everyday.





김미란 유니젠 한국의 천연식물 지킴이 김미란 전임 연구원

글 이윤진 대리, 교육부, 유니베라 한국

아주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마술처럼 현실이 되었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를 에코넷 웨이 열한 번째 칭찬릴레이 주인공으로 만들어준 꿈의 마술사 오미선 전임 연구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열두 번째 칭찬릴레이 주인공은 유니젠 한국, 천연물연구팀 김미란 전임 연구원입니다. 2004년 9월 서울에 있던 유니젠 사업부가 충남 병천 유니젠 연구소로 이전하면서

더욱 가까워진 동료이자 친구입니다. 병천 연구소는 인적도 드문 곳에 자리잡고 있어 서울에서 내려간 저는 낯설고 쓸쓸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반갑게 손 내밀며 다가온 친구가 바로 김미란 전임 연구원입니다. 언뜻 보기엔 무뚝뚝해 보이지만 힘들 때 묵묵히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준 속 깊은 마음 따뜻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병천 연구소에서 보낸 4개월이라는 기간이 짧지만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미란씨, 다시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비록 함께 있진 않아도 같은 에코네시안이라는 것에 행복합니다.



낮선 환경과 규칙적인 기숙사 생활이 익숙지 않았던 저에게 김미란 전임 연구원은 먼저 스스럼 없이 다가와 기숙사 선배로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대개 밤 늦게까지 연구소에 있다가 기숙사로 내려오는 날이 많았지만 1분 1초도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않는 그녀였습니다. 그렇게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여 직접 만든 십자수 휴대폰 고리와 귀걸이를 제게 선물했는데, 그녀에게 너무 소중하고 금쪽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니 마음 깊은 곳까지 고마움이 물들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그녀의 도움을 받아 십자수를 배우게 되었고, 도끼자루 썬는 줄 모르고 십자수 삼매경에 빠져 크리스마스 바자회에 십자수로 만든 아이 신발과 쿠션을 출품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기숙사 생활이 익숙해질 때쯤 제가 다시 서울로 올라가면서 서로 서운한 눈물을 감추며 그녀와 헤어져야 했습니다. 떠나는 날 연구소 문 앞까지 나와 힘껏 손을 흔들며 응원해준 그녀의 모습이 흐릿해져 갈 무렵 그녀가 유니젠 한국을 그만두고 연구원이 아닌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익숙지 않은 직장생활로 힘들어 한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힘들 때 힘이 되어준 그녀에게 저는 정작 큰 힘이 되지 못한 거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거짓말처럼

그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부랴 부랴 전화로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에게 유니젠 한국의 연구원이라는 이름이 몸에 딱 맞는 옷이었습니

다. 김미란 전임 연구원은 일에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한 번 맡은 업무는 늦은 밤까지 연구하며 그것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몰두합니다. 그 모습은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경주마처럼 힘차고 역동적입니다. 이렇게 우수한 경주마가 이끄는 유니젠 한국이라는 마차는 치열한 경주에서 반드시 우승할 것입니다. '나비효과'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다음 달 미국 뉴욕에서 폭풍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과학이론을 모티브로 한 영화였습니다. 지금 김미란 전임 연구원의 바람, 소망, 꿈들은 작은 날개짓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그 작은 날개짓이 그녀를 유니젠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여자 연구팀장이라는 폭풍을 일으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미란씨, 다시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비록 함께 있진 않아도 같은 에코네시안이라는 것에 행복합니다. 올해는 건강하고 더 예뻐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란씨 마음같은 그런 좋은 인연 만나세요.

Miran Kim

Unigen Korea
Unigen's Protector of Natural Botanicals, Research Associate Miran Kim

By Yunjin Lee, Assistant Manager, Education Dept., Univera Korea

I dreamed a happy dream. And like magic, that dream became reality.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once again to Research Associate Miseon Oh, the alchemist of dreams who made me the star of the eleventh installment of the Commendation Relay despite my many flaws.

The twelfth star in our Commendation Relay is Research Associate Mi-ran Kim of Unigen Korea's Natural Product Research Team. She is a coworker and a friend with whom I became even closer after Unigen's Business Division moved to the research facility in Byeongcheon, Chungnam Province, in September 2004. Because the Byeongcheon lab is

located in a relatively isolated area, I felt lonely in my new and unfamiliar surroundings after moving there from Seoul. It was at this point that Research Associate Miran Kim extended a warm hand of welcome and embraced me as a friend. She might appear rather taciturn at first, but Miran is a deep-thinking, warmhearted person who silently stood by me and gave me support during the hardest times. For this reason, I will always look back on my four months at Byeongcheon as a brief but infinitely precious memory.

When I was still unaccustomed to my strange environment and the regimented life of the dormitories, Mi-ran approached me without reservations and helped

My beloved friend Miran, thank you for coming back to us. Although we are not together, I am happy in the knowledge that we are fellow ECONETia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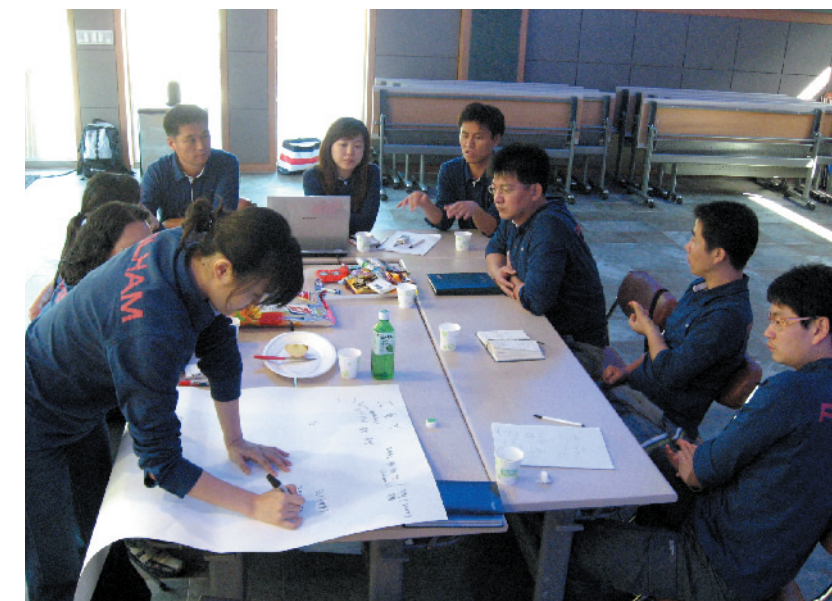
me to adjust to my new surroundings as someone who was already familiar with dormitory living. She generally stayed late at the research lab before coming down to her dorm room, but she never wasted a single second of her day. Putting the few snippets of free time at her disposal to good use, she even made me a cell phone strap and earrings with cross-stitched embellishments. It made me profoundly thankful to think that she had devoted her precious, golden leisure time to creating these gifts for me. Afterwards, I learned to cross stitch myself with her help, and became so utterly absorbed in cross stitching that by winter I was good enough to submit cross-stitched children's shoes and cushions for the Christmas Bazaar.

Just when I was getting used to dormitory life, I had to return to Seoul. We bid a fond but tearful farewell. Later, as the memory of her energetically waving to me in encouragement at the gates of the research lab began to grow fainter, I received the news that she had left Unigen Korea and had gotten a regular office job instead of a research position. I was pained to hear that she was having a difficult time in her unfamiliar job. Even though she had lent me strength during my hour of need, I felt that I had let her down by not being able to do the same for her. Then a few months later, she came back just like a dream. The instant I heard the news, I hurriedly called her to give her my congratulations. Her new title as a researcher at Unigen Korea fit her like a glove.

Research Associate Miran Kim is truly passionate about her work. Once she is assigned a task, she immerses herself in it until she fulfills it perfectly, even if it means working deep into the night. Watching her is

like seeing a powerful and dynamic racehorse sprinting toward the finish line. Pulled by such an outstanding steed, the chariot that is Unigen Korea will surely win the race even amid the fiercest competition. I once watched a movie entitled 'Butterfly Effect.' It was based on the scientific theory that a butterfly batting its wings in Beijing, China, could cause a tempest in New York the following month. Miran's hopes, wishes, and dreams might as yet be as small as the batting of a butterfly's wings. But in the not-so-distant future, they will raise a grand tempest in the person of the greatest female research team leader that Unigen Korea has ever seen.

My beloved friend Miran, thank you for coming back to us. Although we are not together, I am happy in the knowledge that we are fellow ECONETians. In the New Year, I hope you become healthier and even more beautiful. And I hope that you meet that special someone after your own heart.



데이브 콜맨

유니베라 미국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데이브 콜맨입니다!

글 쿼타 터렐, 구매 담당, 물류관리팀, 유니베라 미국

데이브 콜맨은 에코넷 미국의 DBA 프로그래머이지만 그가 하는 일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가 어느 부서 소속인지 잘 모르고 있다. 2005년 처음 에코넷에 입사했을 때 동료들은 데이브가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걸 곧 알게 되었다. 동료들이 어떤 문제나 어려움에 빠져있던지 그는 항상 창조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이다.

데이브는 누구나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그가 동료인 로비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면 경이롭기까지 하다. 한 사람은 손이 되고 다른 한 사람은 발이 되어 마치 한 사

람이 움직이듯 말 그대로 손발이 척척 맞는다. 우리 모두 그들처럼 일할 수 있다면 능률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데이브는 사무실의 분위기 메이커다. 그는 걸어 다니는 코미디언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가끔 자리에 앉아 업무를 보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올려다 보면 어김없이 데이브가 파티션 너머로 나를 훑쳐 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곤 한다. 그렇게 높은 곳에 누군가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웃음이 나오게 된다.

아내 캐리, 두 딸 엠마와 클레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

루고 있는 데이브는 솔로 앨범을 낸 전력이 있는 기타리스트다. 몇 년간 일본에서 살았던 경험으로 일본어도 유창한 데이브는 가끔 사무실에서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 전화를 받기도 해 사무실에 활기를 더해 준다.

동료들에게 데이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그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데이브는 나의 해결사다. 정보, 질문, 보고서 작성, 데이터 검색, 송장 복사 등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언제 무엇이 필요하든지 그에게 달려가면 항상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도와준다. 고마워, 데이브!”

– 제니 헨츠먼 (회계 담당, 유니베라 미국)

“너무나 다양한 행사와 프로모션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맡고 있는 사람이 바로 데이브입니다. 데이브는 한번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대다수의 프로젝트가 완결될 수 없었을 겁니다. 한번은 일주일에 7개의 보고서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는 항상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일합니다.”

– 제이슨 우드 (세일즈 코디네이터, 유니베라 미국)

“데이브가 아니었다면 월급을 못 받았을 직원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는 데이터에 있어 저의 넘버원입니다. 제 인생의 서포터죠!”

– 사라 쇼 (세일즈 애널리스트, 유니베라 미국)

“데이브는 복잡한 자신의 업무를 매우 단순하게 보이게 만들어 우리가 종종 그 사실을 잊게 만듭니다. 그가 에코넷의 일원이며 특히 우리 IT팀의 일원이라는 것은 대단한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 앤 칼리크 (정보기술 지원 / 시스템 관리, 에코넷 미국)

“데이브는 서번트 리더십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유니베라 생명과학에서 일어나는 시급한 문제들을 그는 다른 일들을 다 제쳐두고 해결합니다. 해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데이



브가 에코넷의 일원이라는 사실은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커티스 브라이언 (정보기술 상무, 에코넷 미국)

“데이브는 남자 중의 남자죠. IT팀에 가서 무언가를 부탁하려고 할 때 저절로 발길이 데이브에게 향합니다. 데이브야말로 언제나 무슨 일이든 절대 거절하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이란 걸 알기 때문이죠. 데이브가 에코넷 가족이라는 사실은 하늘이 내린 축복입니다.”

– 사라 펠 (유통 담당 코디네이터)



Dave Coleman

Univera USA

Who You Gonna Call? DAVE COLEMAN!



By Quita Terrell, Buyer, Distribution, Univera USA

Dave Coleman is the DBA Programmer for ECONET USA, though many people may not know he has a specific title since his duties seem to reach far and wide. When Dave first started working for ECONET in 2005, people quickly learned that he could help make their jobs easier. Whether they search for special data or need a custom program written, Dave always seems to be able to come up with a creative solution.

Dave is a wonderful person to work with. Watching Dave and his colleague, Robbie, work together can be fascinating because one will do something on his own screen, and then the other will respond instantly to take the project to the next step. When I first saw this, I was startled because it was like they were working with the same brain. If only we could all have such quick communication!

Dave also keeps things fun in the office with his goofiness. He is known for seeing the comedy in our everyday lives. Sometimes I feel a presence looming over me while at my desk, and I'll look up to see Dave peering over my cubicle wall. It always makes me laugh because I'm not expecting to see someone so high.

Dave and his wife, Carrie, have two young daughters, Emma and Claire. Dave is an accomplished guitarist and has produced a solo album. He lived in Japan for a couple years and is fluent in Japanese. He often answers the phone in a language other than English, adding to our company's flavor of d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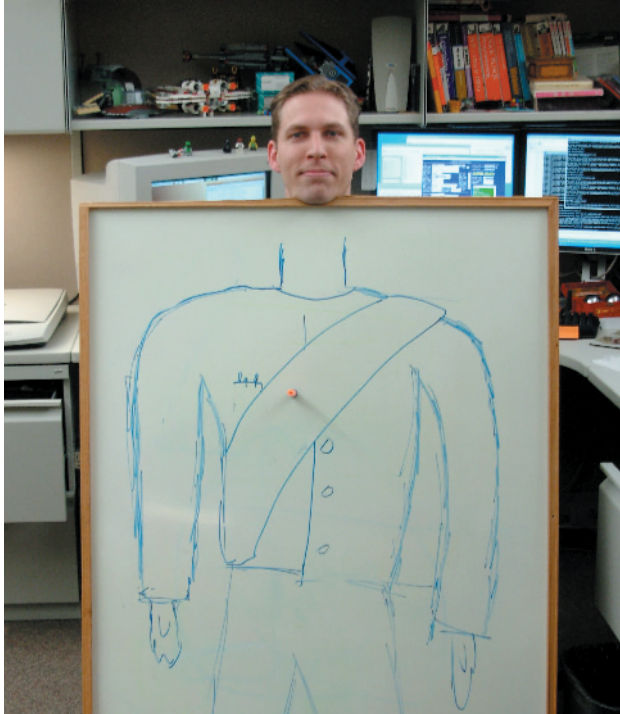
When I asked people for their thoughts about Dave, they responded quickly and positively. Here are some of the things they said

"Dave C. is my 'GO TO' guy. Whenever or whatever is needed: information, a path to information, a question answered, a report written, data tracked down, an invoice copy, etc. etc. etc., I know I can go to Dave and he will do whatever he can to help me. Thanks, Dave!"

- Jenny Huntsman, Accountant, Univera USA

"Due to a lot of the different events and promotions the company does, we have to get reports all the time. Dave is the one who gets these reports for me. He has never complained about it, and without him a lot of the projects I do would not get completed. There have been times when I have asked for 7 reports in one week. He is always fast and efficient."

- Jason Wood, Sales Coordinator, Univera USA



"There are members of this company that would not receive a paycheck if it weren't for Dave C. He is my number 1, numero uno, when it comes getting data. My life support!!"

- Sarah Shaw, Sales Analyst, Univera USA

"Dave's work is very complex, but he makes it look so easy that sometimes even we forget that. ECONET is fortunate to have him as an employee, and we in IT are lucky that he's part of our team!"

- Anne Kalich, IT Support / System Administrator, ECOET USA

"Dave exemplifies Servant Leadership. He is continually presented with emergency issues for Univera LifeSciences. He always takes the problem to heart; putting aside everything else, to resolve the problem. His willingness to find solutions, even when approached with near-impossible situations, is relentless. ECONET is blessed to have Dave."

- Curtis Bryan, Director of Information Technology, ECONET USA

"Dave C. is the man! When you go to IT for help, you seem to always want to ask Dave since you know he will help you and he never says 'no.' We are very lucky to have Dave around!"

- Sarann Pel, Distribution Coordinator, Univera USA

다른 사람에게 여유를 조금 나눠 줄 수 있나요?



나는 아기가 떠나면 우리에게 채워질 수 없는 빈자리가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글 조쉬 풀턴, 물류센터 직원, 유니베라 미국

오래 전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수양자녀들을 맡을 수 있냐고 물어보셨을 때 나는 그리 달갑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아이들을 돌봐주고 싶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내 세계로 들어와 내 물건들을 마음대로 쓰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우리 가족으로 받아 들일만한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 후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다. 집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한밤중이나 방과 직후에, 혹은 부모가 감옥에 가게 되면서 경찰서에서 바로 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 아이들은 지저분하고 겁에 질려있었으며, 배가 고팠고 많이 상처를 받은 상태였다. 그저 안전한 장소가 필요한 그러한 아이들을 보는 것은 무척 슬픈 일이었다. 어쩌면 그들은 그렇게 많은 자리를 필요로 했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다.

1992년 12월 어느 날, 우리는 사회 복지 활동원으로부터 태어난 지 석 달 된 남자 아기가 갈 집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 사람은 우리가 혹시 아이를 하나 더 키울만한 여유가 있는지 물었다. 그 아기는 심각한 몇 가지 문제가 있었으며 세심한 주의와 사랑이 필요한 상태였다.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하는 지 물어보셨을 때 우리는 모두 찬성했다.

첫날부터 그 아기는 특별했다. 거의 움직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먹고 자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세상 그 어떤 아기보다 예쁜 미소를 가지고 있었다. 너무 사랑스러웠다. 어머니는 아기를 위해 테스트와 치료요법을 시작했고 그 일은 바로 우리 가족 전체의 프로젝트가 되었다. 나는 병원의 물리

치료과, 언어치료과, 그리고 신경치료과를 다니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나에게 남에게 나눠 줄만한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기가 조금이나마 호전된 모습이 보이더라도 우리 가족은 아주 큰 경사처럼 받아들이며 축하했다.

1994년 그 아기는 입양이 가능하게 되었고 사회 복지 활동원은 아기의 이름이 주 등록 리스트에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그 아기의 유일한 가족이었다. 만일 우리 집을 떠나 다른 사람과 살게 된다면 아기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를 하지 못할 것이고 무서워할 것이었다. 밤에 잠이 깨 울면 새 가족이 아닌 우리를 찾는 것일 텐데 아기가 아무리 찾아도 우리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아기가 떠나면 우리에게 채워질 수 없는 빈자리가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가족회의를 거쳐 아기를 입양하자는 결정을 내렸고 그 시간은 2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서류 작성, 인터뷰, 사례 연구, 집 조사, 의사 보고서 그리고 치료사들의 평가를 받는데 2년 여가 걸렸다.

1995년 11월 14일, 모든 입양 절차가 공식적으로 마무리 됐다. 비로소 엘라이아 디전 풀턴은 우리 식구가 됐으며 앞으로 영원히 그럴 것이었다. 나는 만화를 볼 때 무릎에 엘라이아를 위한 자리를 만들었으며, 친구들과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나갈 때 차 안에 엘라이아를 위한 자리를 하나 더 만들었으며, 엘라이아가 악몽을 꾸는 밤이면 침대 한쪽을 아이에게 내주었으며, 엘라이아가 관심이 필요하다 싶으면 내 스케줄에 따로 시간을 만들었다. 사랑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과 나눌 여유가 있다.



Is There Room For More?

I realized then that if he left us, we would have too much room!

By Josh Fulton, Warehouse, Univera USA

Many years ago, when my mom first asked us about taking in foster kids, I wasn't very excited. I didn't want to have to baby sit other peoples' kids or have some stranger come into my world and use my things. I guess I didn't think there was any room for more people in our family.

Then they started coming. In the middle of the night, or right after school because they couldn't go home, or even on weekends straight from the police station when their parents were headed for jail. They were dirty, hungry, scared, and hurt. It was very sad to see these kids who needed a safe place to be. Maybe they didn't need much room after all.

One day, in December of 1992, we got a call from a caseworker about a three-month-old baby boy who needed a home. The caseworker asked my mom if we had room for another one. This little guy had some serious problems and he would need extra care and extra love. My mom asked us what we thought and we all said, "Yes."

From day one, this baby was exactly that-he was special! He had hardly any motor skills at all and he had trouble eating and sleeping, but he had the biggest smile you could imagine. He was so loveable. Mom started him in testing and therapy right away and it became a family project. I learned something very important through all

the trips to the physical therapist, the speech therapist and the neurologist, and that was that I had a greater capacity to share than I ever thought I would. Every accomplishment-no matter how small-was a major event in our house. And there was always room for celebration.

In 1994, he became legally free for adoption and the caseworker said his name would be placed on the state registry. We were the only family he had ever known. If he left our house to go live with someone else, he wouldn't understand and he would be scared. If he woke up in the night crying for his brother, he wouldn't be crying for his new family-he would want comfort from us and we wouldn't be there! I realized then that if he left us, we would have too much room!

It was time for a family meeting. It took about two minutes to make the decision to adopt him. It took about two years to get through the paperwork, interviews, case studies, home inspections, physician reports and therapist evaluations. On November 14, 1995, it became official. Elijah Deion Fulton was ours and he would be forever. So I made room in my lap when we were watching cartoons. I made room in my car when my friends and I went for ice cream. I made room in my bed when he had a bad dream. And I made room in my schedule when he needed attention-when you have love, you always have room for more.



재활용을 몸소 실천하는 유니베라

“에코넷에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 에코넷은 인류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가져다 주며 이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기업이다.”
- 줄리 다비

글 다나 산달, 카피 라이터, 유니베라 미국

안타깝게도 보통의 미국인들이 매일 4.5파운드나 되는 쓰레기를 배출한다. 하지만 또한 많은 미국인들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재활용날”이 2007년으로 10주년을 맞게 된다. 에코넷 문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비옥하지만 취약한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워싱턴 레이스에서 재활용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Univera LifeSciences™ 내에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 위원회는 유니베라 CEO인 Stuart Ochiltree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그의 철학은 매우 간단한 것이었다. 즉 ‘최



고의 재활용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 곳 레이스에서 시행하라’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재활용 위원회 위원들은 전체 에코넷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기 위해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다. 위원회 구성원들은 점점 늘어만 가는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다음은 재활용에 관한 위원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은 것이다.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살아 가는 것은 전체 지구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들의 현명하고 지각 있는 선택이다.”

- 낸시 포피에라직 (프로젝트 세일즈 매니저, 유니베라 미국)

“다른 누구보다도 환경 친화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재활용에 동참할 것이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재활용 위원회에 참가하여 환경 보호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또한 에코넷의 기업 특성을 생각해본다면 처음부터 재활용 운동을 하지 않은 것이 이상한 일이다.”

- 타라 아담스 (프론트스크 코디네이터, 에코넷 미국)

“에코넷에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 에코넷은 인류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가져다 주며 이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기업이다. 이러한 노력에 있어 재활용 운동은 반드시 그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 줄리 다비 (씨니어 프로젝트 세일즈 매니저, 유니베라 미국)

“훌륭한 리더는 스스로 모범이 된다. 그리고 기업으로서 에코넷은 다른 기업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재활용은 단순히 나 자신 뿐만이 아닌 인류 전체를 위해 대기 환경을 보다 깨끗하게 지구를 보다 깨끗하게 만든다.”

- 사라 쇼 (마케팅 세일즈 분석가, 유니베라 미국)

“지구를 위해 가장 최선인 것을 하자. 그리고 재활용이라는 간단한 운동을 통해 그 실천자가 되자.”

- 리자 스태거 (제품 개발 코디네이터, 유니베라 미국)

“재활용은 매우 작은 실천이지만 우리가 매일 각자의 역할을 다 할 때 큰 변화를 일으킨다.”

- 리네 버틀러 (행정보조, 유니젠 미국)

“무관심과 무지는 더 이상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우리가 어떠한 변화도 일으킬 수 없다는 나약한 변명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 모두가 플라스틱, 알루미늄 캔, 종이, 유리 등을 재활용 용기에 넣고 스스로의 행동을 자랑스러워하기 바란다.”

- 다나 산달 (카피라이터, 유니베라 미국)



“I want to make a difference within our ECONET community.”
- Julie Darby

Univera We recycle!



By Donna Sandahl, Copywriter, Univera USA

Sadly, the average American generates 4.5 pounds of trash every day. However, many people living in the United States are not only acutely aware of this problem, they are actively doing something about it; in fact, the very first ‘American Recycle Day’ will celebrate its 10th anniversary in 2007. Because the ECONET culture is based on an appreciation of the fecund yet fragile nature of our marvelous planet, we

formed a committee in Univera LifeSciences™, to address the need for a strong recycling endeavor here in Lacey, Washington.

The committee was empowered and encouraged by Univera CEO, Stuart Ochiltree, whose mandate was simple: get the best recycling program possible and establish it here in Lacey-now! To that end, the recycle

committee members had a series of meetings to determine how best to fit the needs of all three ECONET companies. Each member of the committee worked diligently towards the common goal of stopping the astonishing waste.

Here’s what the hard-working committee members had to say

“Living on this earth responsibly is a wise and sensible choice of an individual that has a beneficial effect on a whole planet.”

- Nancy Popielarczyk (Project Sales Manger, Univera USA)

“I do not have the most environmentally friendly habits, but when given the opportunity I will recycle. I’m sure others feel the same way. So I decided to join our recycling committee and help make something positive happen. Plus being the type of company we are, it just didn’t make sense that we never recycled in the first place.”

- Tara Adams (Front Desk Coordinator, ECONET USA)

“I want to make a difference within our ECONET community. We’re all about bringing the best to mankind and taking care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recycling should definitely be a part of that.”

- Julie Darby (Senior Project Sales Manager, Univera USA)

“Good leaders lead by example and we, as a company, can set a great example. Recycling means cleaner air and a cleaner earth for all not just you and me.”

- Sarah Shaw (Sales and Marketing Analyst , Univera USA)

“Let’s do what is best for this earth and become the stewards we know we can be through something as simple as recycling.”

- Lisa Staiger (Product Development Coordinator, Univera USA)

“Recycling is one of the little things we can do each day that can make a big difference when each of us does our part.”

- Linnea Butler (Administrative Assistant, Unigen USA)

“Indifference and ignorance are simply no longer excuses to pretend that we can’t make a difference in the outcome of our planet. I challenge each of you, one person at a time: put your plastics, aluminum cans, paper and glass into the bins provided and be proud.”

- Donna Sandahl (Copywriter, Univera USA)





1

오레건 해안은 감각을 즐겁게 한다.

하늘은 낮 동안은 흘러가는 구름과 함께 근사한 청회색이고 밤에는 깜깜한 하늘에 흩어진 별들로 진청색이 된다.

글 캐티 마컴, 임원 행정보조, 유니젠 미국 사진 엘리자베스 스캇(캐티의 언니)

매년 우리 자매들은 오레건으로 특별한 여행을 떠난다. 태평양 한 구석의 이 거친 해안에 우리가 매료되는 것은 우리의 아일랜드 혈통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바닷가 암벽에 부서지는 거친 파도와 회색의 바다를 건너 밀려오는 짙은 안개는 언제봐도 질리지 않는다. 물은 얼음처럼 차고 물결은 일년내내 급하게 밀려나간다.

우리는 매번 오레건 왓도프에 있는 린다가 찾아낸 한 집을 빌린다. 이 집은 모든 방에서 근사한 바다 풍경이 보이지만 우리는 야외의 나무 Deck 한가운데 자리잡은 커다란 뜨거운 욕조에서 보는 바다 풍경을 특히 좋아한다. 욕조에 앉아 해안에 부서지는 파도 소리와 먹이를 찾아 서로 물어대며 머리위로 날아오르는 바다갈매기들의 소리를 듣는다. 하늘은 낮 동안은 흘러가는 구름과 함께 근사한 청회색이고 밤에는 깜깜한 하늘에 흩어진 별들로 진청색이 된다.

우리는 해안을 걷고, 엘리자베스의 정원에 가져갈 갈색과 검정색 돌을 줍고, 바다 생물들이 살다 버리고 간 빈 조개 껍데기를 줍고, 백 피트 위 하늘로 연을 날리며 시간을 보낸다. 그 동네 마구간을 찾아가 말을 빌려 해안 모래언덕에서 말을 타기도 한다. 머리는 항상 바람에 날려 엉망이고 발은 모래 투성이고 입에는 바다 소금기가 느껴진다. 우리가 항상 손꼽아 기다리는 무척 행복한 시간이다.

우리는 플로렌스라는 마을로 쇼핑도 간다. 오레건 바닷가에 흩어져 있는 작은 마을 중의 하나인데 으레히 보는 여행자들을 위한 상점들이 있어서, 신선한 Saltwater Taffy(주로 바닷가에서 파는 카라멜 같은 캔디)와 홈메이드 Fudge(부드럽고 크림이 많이 들어간 캔디), 지역 예술가들의 그림과 해안의 부목과 조개껍데기로 만든 특이한 물건들을 판다. 우리는 그 동네 식당에서 Clam Chowder(대합을 넣은 수프)와 따뜻한 빵과 와인을 먹는다. 데브라와 엘리자베스는 여행 기념으로 귀금속 갤러리에서 수제 은팔찌를 산다.

일주일은 오레건 해안과 동행들과의 시간을 즐기기에 그리 충분히 긴 시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그 거친 해안이 그리워 같은 집으로 같은 해안을 걷기위해 돌아간다. 그것이 바로 오레건 해안이다.

머리는 항상 바람에 날려 엉망이고 발은 모래 투성이고 입에는 바다 소금기가 느껴진다. 우리가 항상 손꼽아 기다리는 무척 행복한 시간이다.

1. 해안에서의 말타기. 우리는 전문 사진 모델들이 아닙니다.
Horseback riding on the beach. We're not professional models.
2. 오레건 해안에서 돌과 조개껍질을 줍고 있는 모습
Gathering rocks and shells along an Oregon beach.
3. 오레건 모래 언덕 사이로 보이는 나무들과 바다 풍경
Tree tops and ocean view peak through the Oregon sand dunes.
4. 오후에 육지쪽으로 밀려들고 있는 안개
The fog rolls inland toward afternoon.
5. 조수가 밀려들 무렵 해안에 발자국을 남기고 있는 모습
Leaving a path of wet footprints as the tide comes 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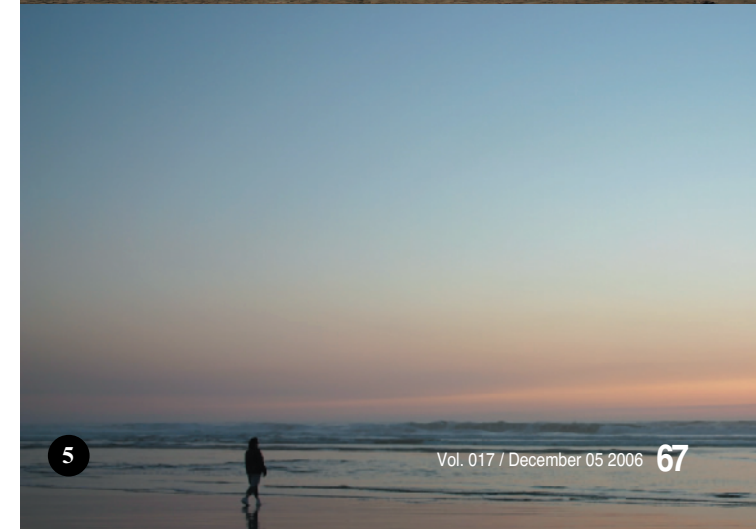
2



3



4



5



Oregon Coast delights the senses

The sky is an incredible blue-grey during the day, with clouds drifting overhead. And, the darkest blue at night, with stars scattered across the midnight sky.

By Kathy Markham, Executive Administrative Assistant, Unigen USA
Photos by Elizabeth Scott (Kathy's sister)

Every year, my sisters and I plan a special trip to the Oregon coast. We blame our Irish heritage on our affinity for the rugged coastal beauty that is this part of the Pacific Ocean. We never tire of the sight of pounding waves on rocky beaches or the dense fog weaving its way inward across the grey ocean. The water is icy cold and currents pull strongly out to sea, regardless of the time of year.

We always rent one specific house in Waldport, Oregon. Linda found it. It has an amazing view of the ocean from any room. But, we especially love the view from the huge hot tub set firmly in the middle of the wooden deck. We sit out there in the hot tub, enjoying the sounds of the waves crashing onto the beach, the seagulls soaring overhead and calling out loudly to one another in search of scraps of food. The sky is an

incredible blue-grey during the day, with clouds drifting overhead. And, the darkest blue at night, with stars scattered across the midnight sky.

We spend hours walking the beach, picking up brown and black rocks to bring home for Elizabeth's garden, cleaning off shells deserted by their former inhabitants and making our kites dance hundreds of feet in the air. We visit the local stables and go horseback riding on the dunes. Our hair is always wind-blown, feet gritty with sand, and we can taste the ocean's saltiness on our lips. It's a very happy time that we all look forward 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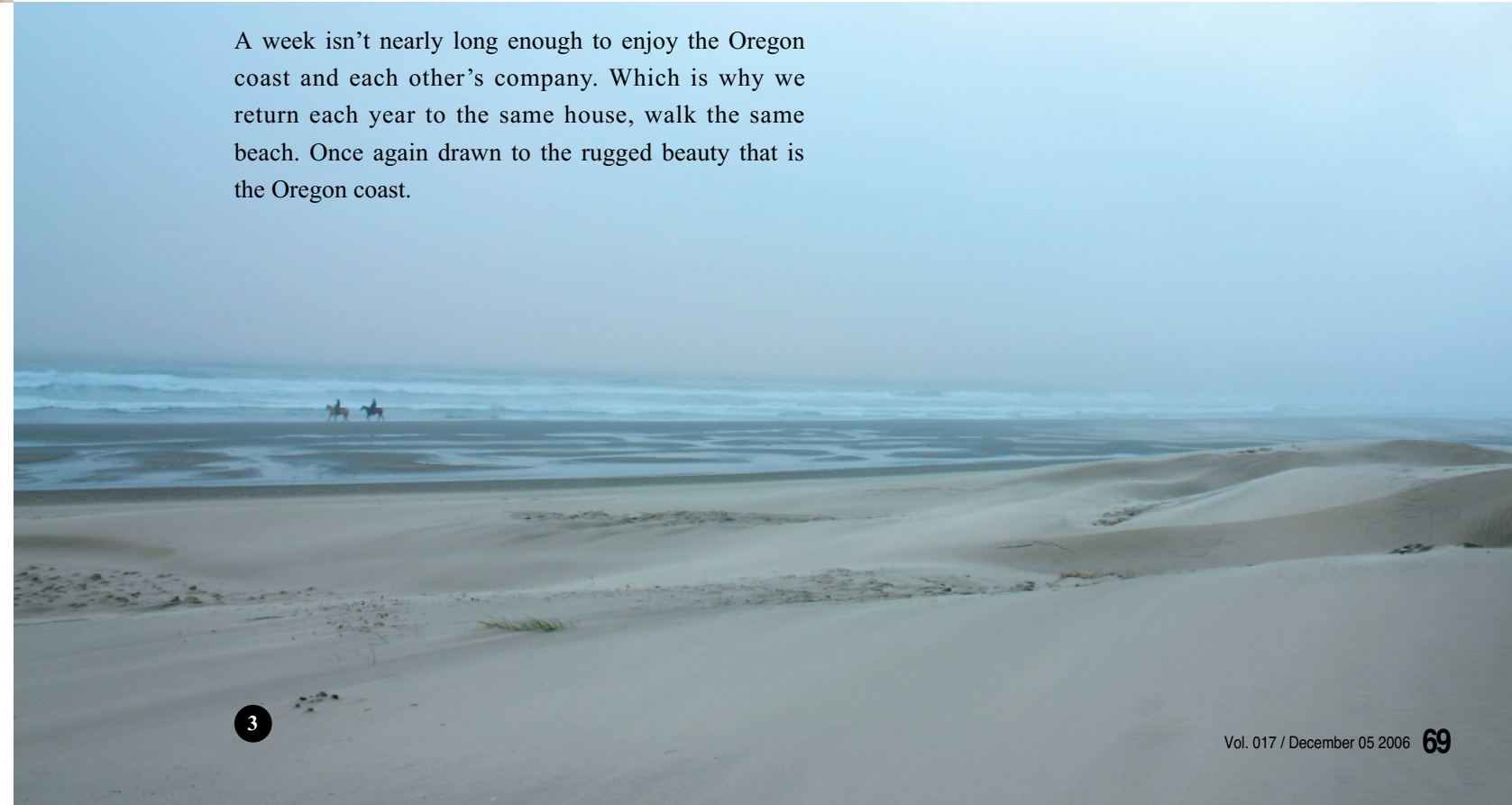
We go into the town of Florence for shopping. It's one of the many small towns spaced along the Oregon coast. There are the usual tourist spots, where you can buy fresh salt water taffy, homemade fudge, local artists' paintings and unique items made from driftwood and shells gathered on the beaches. We have clam chowder, hot bread and wine at a local restaurant. Debra and Elizabeth buy handcrafted silver bracelets from a jewelry gallery to commemorate our tr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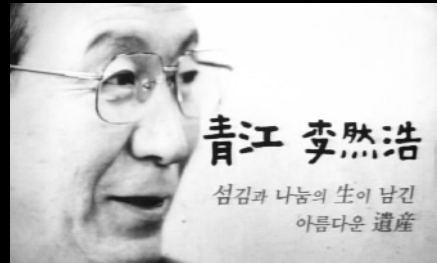
Our hair is always wind-blown, feet gritty with sand, and we can taste the ocean's saltiness on our lips. It's a very happy time that we all look forward 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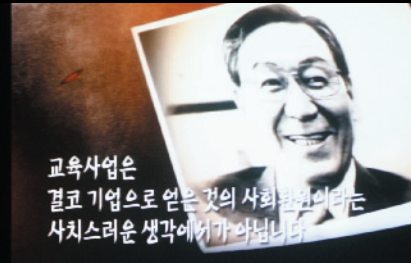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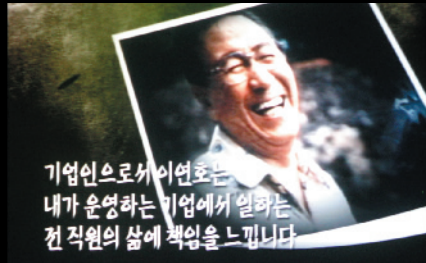
1. 오레건 해안에 떠밀려 온 있는 부목
Driftwood washes up on the Oregon shoreline.
2. 연을 날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습
Preparing the kite for flight.
3. 오레건 바닷가에서 호젓이 말을 타고 있는 두 사람
Two lone riders ride along the Oregon coast.

A week isn't nearly long enough to enjoy the Oregon coast and each other's company. Which is why we return each year to the same house, walk the same beach. Once again drawn to the rugged beauty that is the Oregon coast.





1



靑江 李然浩 회장 10주기 추모음악예배

ECONET의 고 이연호 회장의 10주기 추모식이 지난 11월 10일 생전에 당신이 설립했던 청강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해외법인 임원을 포함한 ECONET 임직원, 청강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 그리고 내외빈 약 6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추모식은 고 이연호 회장의 묘소헌화, 어울림관의 '청강의 어울림' 벽화 제막식, 음악예배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벽화 제막식에서는 청강문화산업대 교직원과 학생의 사진 2,491장으로 이 전회장의 모습을 모자이크로 형상화한 '청강의 어울림' 벽화가 소개되었다. 또한, 추모음악예배에 앞

서 영상을 통해 청강 소천 후 10년 동안 학교와 ECONET 기업의 발전상과 청강이 소중하게 여겼던 섬김과 나눔의 정신이 이어짐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유니베라 한국 김영환 사장이 유족대표인 정희경 이사장에게 청강평전 '땅 위에 별을 심은 사람'을 헌정하였고 남성양상을 솔리스티의 공연과 청강대학 학생들의 추모 공연으로 고 이연호 회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 한편, 이병훈 총괄사장은 유족인사를 통해 참석자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3



4



5



6



7



2



2

靑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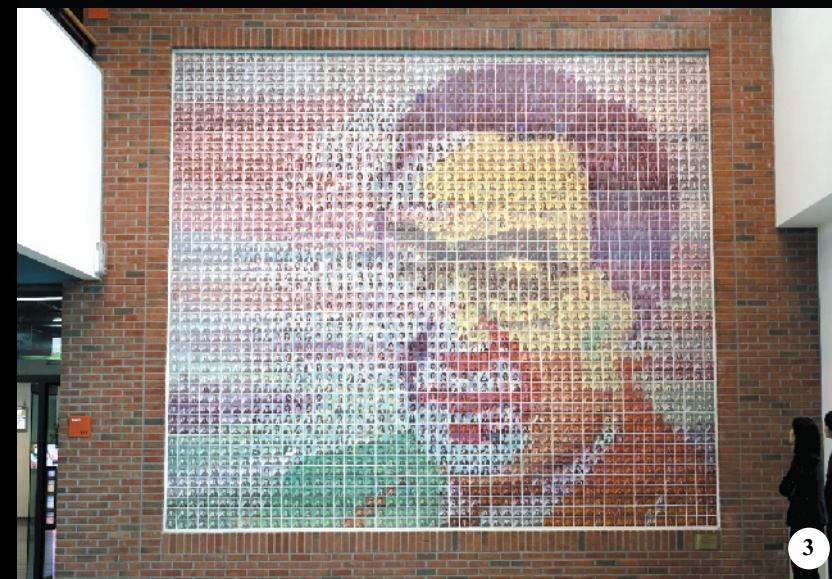
1. 영상회고록 중에서 / From the "Video Memoirs"
2. 청강대학 학생들의 추모공연/
Memorial performance by Chungkang College students
3. 묘소헌화 / Presentation of flowers
4. 유가족 헌화 / Presentation of flowers by the bereaved family
5. 내.외빈 헌화 / Presentation of flowers by various guests
6. 청강의 어울림 제막식 / Unveiling of "Consonance of Chungkang"
7. 청강의 어울림 제막식후 기념촬영/
Commemorative photo shoot following the mural unveiling

Memorial Music Service for the 10th Anniversary of the Passing of the later Chairman Yeonho Lee

The service commemo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 the passing of the late ECONET Chairman Yeonho Lee was held on November 10 at Chungkang College of Cultural Industries, which he founded during his lifetime. More than 650 people gathered to pay their respects at the service, including ECONET staff and executives from Korean and overseas offices, Chungkang students and faculty, and various invited guests. The day's events began with a presentation of flowers at Chairman Lee's gravesite, followed by the unveiling of a mural at Eoulim Hall), and a music service. The mural introduced on this day, entitled 'Consonance of Chungkang,' is a depiction of Chairman Lee composed in mosaic from 2,491 photographs of students and faculty at Chungkang College. Prior to the music service, a video tribute showed the development of the college and ECONET over the decade since Chairman Lee's passing, as well as the continuation of the spirit of serving and sharing that the late chairman always held dear. After the music service, Univera Korea President Youngwhan Kim



presented "He Who Planted Stars on Earth," a critical biography of the late Chairman Lee, to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representative of the surviving family, Helen HeeKyung Chung. Performances by the male ensemble Solisti and Chungkang College students also helped to allay the sorrow of loss. In his address, Univera CEO Bill Lee expressed his appreciation to all those attended.



青江

1. 하태규 교목 예배 집례 / Service led by Chaplain T. G. Ha
2. 청강대학 학생들의 추모공연 / Memorial performance by Chungkang College students
3. 청강대 교직원과 학생의 사진 2,491장으로 만든 고 이연호 회장의 모습을 담은 '청강의 어울림' 벽화 / Mural "Consonance of Chungkang," a mosaic portrait of the late Chairman Lee composed of 2,491 photos of Chungkang students and faculty
4. 유니베라 한국 김영환 사장이 유족 대표인 정희경 이사장에게 청강평전 '땅 위에 별을 심은 사람'을 헌정 / Univera Korea President Youngwhan Kim presenting the biography of the late Chairman Lee, "He Who Planted Stars on Earth," to Helen HeeKyung Chung, Ed., D, who represented the surviving family at the memorial service
5. 김호식 목사 설교 / Sermon by Pastor H. S. Kim

에코넷기업본부 / ECONET Korea

1 Loren Israelsen 유니베라 한국 본사 방문

미국의 DEHEA법 제정에 깊이 관여하는 등 세계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저명 인사인 Loren Israelsen씨가 에코넷 센터를 방문했다. Israelsen씨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성공요인과 향후 시장변화 등을 주제로 강연하여 참석한 임직원 약 40여명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 강연을 통해 ECONET은 세계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트렌드와 현재 에코넷의 준비 상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했다.

한편, Israelsen씨는 10월 26일부터 29일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주최로 열렸던 '2006 자연건강식품 박람회'에서 본사 이병훈 총괄사장의 추천으로 미국에서의 DSHEA법의 제정 과정과 시장에서의 향후 추세에 대해 발표했다.



• 건강기능식품박람회장 유니베라 전시관 앞에서
• In front of Univera's booth at the Natural & Health Foods Expo

Loren Israelsen Visits Univera Korea Headquarters

Mr. Loren Israelsen, a renowned figure in the worldwide health supplement industry who played an instrumental role in the legislation of the U.S.'s DSHEA Act, visited the ECONET Center. Mr. Israelsen lectured on the factors that contribute to success in the dietary supplement market and the anticipated changes to the market in future years, to the enthusiastic response of over 40 staff members and executives who attended. His lecture provided a valuable opportunity for understanding the trends in the global health supplement industry and for

assessing ECONET's readiness at present.

Mr. Israelsen also made a presentation at the Korea Health Supplement Association's Natural & Health Foods Expo 2006, which took place from October 26 to 29, through the recommendation of Chairman Bill Lee. His presentation, on the process of introducing and passing the DSHEA Act in the U.S., also offered future projections about the market.

2 Global CEO Meeting



2007년의 사업 전략을 점검하고 에코넷의 각 사 간의 비즈니스 이슈를 검토하기 위한 Global CEO Meeting이 2006년 11월 8~9일에 걸쳐 ECONET 센터에서 열렸다. 2006년도 ECONET 모든 계열사의 높은 성장세와 2007년도에 대한 희망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Global CEO Meeting

The Global CEO Meeting, aimed at examining the company's business strategy for 2007 and discussing various business issues among ECONET subsidiaries, took place from November 8 to 9, 2006 at the ECONET Center. This year's meeting was a meaningful event where the high growth of all of ECONET's subsidiaries in 2006 was celebrated and hopes for the coming year were shared.

유니베라 한국 / Univera Korea

3 2006 자연건강식품 박람회 참가

유니베라(주)는 건강기능식품협회 주최로 지난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일산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열린 2006 자연건강식품 박람회에 참가하여 변경된 사명 유니베라와 새로운 제품 브랜드인 리니시에를 적극 홍보하여 관람자들의 큰 반응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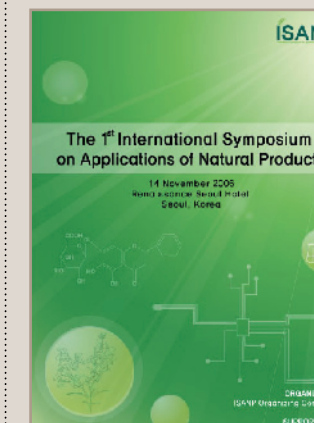
유니베라는 브랜드의 홍보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유니베라 갤러리'라는 컨셉으로 부스를 제작했고, 방문객들에게는 유니베라 로고가 새겨진 쇼핑백과 신제품 '리제니케어K' 건본품 등을 기념품으로 증정했다. 그 외에 알로엑스골드 액티브알로에 시음회, 체지방 분석, 에코넷 퀴즈쇼 및 스탬퍼 게임 등의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했다. 3만2천명 이상이 관람한 이번 행사에서 유니베라 부스에는 2만2천명 이상이 방문하여, 건강기능식품업계를 이끌고 있는 유니베라의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인 계기가 됐다.

Participation in the Natural & Health Foods Expo 2006

Univera Inc. took part in the Natural & Health Foods Expo 2006, hosted by the Korea Health Supplement Association (KHSa) at the Kore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KINTEX) in Ilsan from October 26 through 29. At the expo, the active promotion of the company's new designation as "Univera" and our new cosmetics brand "L'initie" elicited an enthusiastic response from visitors. To better promote the Univera brand and elevate the company's image, the booth was built to fit the

design concept of "Univera Gallery." Each visitor was presented with a shopping bag bearing the Univera logo and a sample of the new product Regenicare K. In addition, there were various events such as a taste test for Alo-X Gold by Active-Aloe, body fat analysis, the ECONET quiz show and the Stepper Game. Among some 32,000 people who attended this year's expo, over 22,000 visited Univera's booth, once again raising Univera's status as the leading company in the health supplement industry.

4 국제천연물심포지엄(ISANP:International Symposium on Applications of Natural Products)



에코넷이 후원하는 국제천연물심포지엄이 2006년 11월14일(화) 르네상스 서울 호텔에 서 국내외 9명의 연사와 관련 학계 교수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병훈 총괄사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번 심포지엄은 'Vision of the natural products industry'라는 주제로 천연물과 천연물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트렌드, 천연물의 기능 및 임상적 응용(황금 및 플라보노이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에코넷은 업계 및 학계의 국제적인 네트워크 역량을 확인하고 강화함으로써 국제 천연물 업계에 한국의 위치를 재조정하고, 국제적인 선두 기업으로 에코넷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천연물 R&D의 과학적 노하우와 최신의 천연물연구산업 분야의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에코넷 연구 개발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었다.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Applications of Natural Products (ISANP)

This year's International Symposium on Applications of Natural Products (ISANP), sponsored by ECONET, was successfully held at the Renaissance Seoul Hotel on Tuesday, November 14 amid the participation of nine speakers from Korea and abroad and over 150 professors in related disciplines.

The symposium, which opened with a commemorative address by Chairman Bill Lee, was enlivened by discussions on overall trends for natural products and the natural products industry, and on the functions and clinical applications of natural products (Gold and flavonoids), under the general theme of "Vision of the Natural Products Industry."

Through this year's symposium, ECONET realigned Korea's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natural products industry by affirming and strengthening the global network capacity of Korea's commercial and academic sectors, elevated ECONET's status as a world-leading company, and contributed to the enhancement of ECONET's R&D capacity by sharing scientific know-how on natural products R&D and the results of the latest research into natural products.

5 아홉번째 자연을 꿈꾸는 수요일 음악회 '신명나게 어울림'

지난 10월 18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유니베라 본사 에코넷 센터에 마련된 유니베라의 Heal the Neighbor '자연의 꿈꾸는 수요일음악회'는 신명 나는 그룹 '타오(TAO)'의 공연을 맞아 야외 공연장에 무대를 마련했다. 공연 초반, 일반적으로 보기 어려운 전통 대북공연으로 관객들에게 마치 심장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 같은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경험하는 시간을 선사했다. 박진감 넘치는 사물놀이 가락과 길놀이, 모듬북 연주를 함께 즐긴 관객들은 걸출한 입



담의 사회자의 주도로 동군과 서군으로 나뉘어 힘겨루기와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줄다리가 끝난 후에는 서로의 어깨를 잡고 원을 그리며 흥겨운 북소리에 맞춰 유니베라 마당을 돌며 공연의 아쉬움을 하나된 어울림으로 마무리했다. 유니베라의 '자연을 꿈꾸는 수요일음악회'는 9회를 끝으로 올해 공연을 마무리했으며, 내년 4월부터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9th Wednesday Concert with Dreams of Nature: "A Rollicking Harmony"

On October 18 at the ECONET Center in Seongsu-dong, Seoul, Univera's "Heal the Neighbor" Wednesday Concert with Dreams of Nature was held on an outdoor stage with performances by the dynamic group TAO. At the beginning of the concert, TAO treated the audience to a rarely-seen performance using traditional oversized drums (known as daebuk), whose powerful sounds recalled the heart-pounding thud of horses' hoofs. After enjoying a series of rousing performances on traditional percussion instruments, the audience divided into East and West teams and participated in strength contests and a tug-of-war at the prompting of a voluble MC. When the tug-of-war was over, everyone held their neighbors' shoulders and came together in a large circle, moving around the plaza as one to the lively beating of drums. The ninth Wednesday Concert with Dreams of Nature was the final one for 2006. It is scheduled to resume in April of 2007.

6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건강한 공간 레스토랑 '이음' 오픈

자연과 사람을 함께 품고자 하는 건강한 레스토랑 '이음 eum'이 에코넷 센터 1층에 문을 열었다. 평일 점심에는 에코네시안의 직원 식당으로 이용되며 저녁에는 이탈리아 레스토랑 겸 와인바로 운영된다.



이음 레스토랑에서는 자연이 낳은 풍성한 식재료를 이용, 건강한 조리법으로 맛깔스럽고 담백한 음식을 만든다. 또한 나무를 주조로 이루어진 인테리어 역시 자연이 주는 소재의 따뜻함과 건강함을 살려 음식과 공간, 사람과 환경을 자연스럽게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음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곳'이라는 컨셉트 아래 이음만의 색다른 음식 역사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 위치 : 에코넷 센터 1층
- 문의 : 02-460-8875
- 영업시간 : 점심식사 11시30분~오후 1시30분, 저녁식사 오후 6시~오후 10시

Grand Opening of 'Eum,' a Healthy Restaurant Where Nature and People Come Together

Eum (meaning 'connection' in Korean), a healthy restaurant that embraces both humans and nature, opened its doors on the ground floor of the ECONET Center. Eum will be open exclusively to ECONETians as an employee cafeteria during weekday lunch hours, and operated as an Italian restaurant and wine bar during dinner hours.

At Eum, delicious and savory dishes made using plentiful natural ingredients and healthy recipes will be served. In addition, the interior design, created predominantly with wood, utilizes the warmth and wholesomeness of the natural material to forge connections between food and space, people and the environment.

Under the banner of "a space where nature and people come together," Eum will go on to write a new and unique culinary history.

- Location: Ground floor of the ECONET Center
- Information: 02-460-8875
- Hours of operation : Lunch from 11:30 a.m. to 1:30 p.m., dinner from 6:00 p.m. to 10:00 p.m.

7 '중국속의 한국' 탐방단 모집

유니베라 한국은 지난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홈페이지(www.univera.com)를 통해 '중국속의 한국' 탐방단을 모집했다.

유니베라 한국은 미래를 짚어질 청소년들에게 중국에서 경제적, 문화적으로 한류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직접 체험해 볼 기회를 제공하고 자 이번 탐방단을 모집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탐방단은 교육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참가하여 세대간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어머니와 자녀 한 명으로 이루어진 탐방단 10팀(총 20명)은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3박4일 동안 중국 하이난 섬을 방문, '중국 속의 한국'을 탐방했다.

이 기간동안 탐방단은 중국 하이난 섬에 있는 유니베라의 동양 최대의 알로에 농장을 방문하여 알로에 묘목심기 등을 체험하고, 현지의 다양한 문화들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방문 2일째인 28일에는 해남성(하이난의 한자 표기)의 만년시 10주년 기념행사에 초대된 강타, 동방신기, 천상지희 The Grace, 슈퍼주니어, 장리인 등 최고의 한류 스타의

공연도 함께 관람했다.

Recruitment of 'Korea in China' Expedition Team

For a period of one week from November 13 to 19, Univera Korea recruited members for the "Korea in China" expedition team through its official website (www.univera.com).

In recent years, the "Hanryu Wave" has been a tremendous economic and cultural phenomenon in China. The expedition team was designed to provide young men and women on whose shoulders the future of Korea will rest with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Korea's powerful potential firsthand, Univera Korea explained. The expedition not only served an educational purpose, but also helped to forge connections between generations by inviting mothers to participate with their children. The expedition, which consisted of 10 mother-child teams (20 participants in all) visited Hainan Island, exploring "Korea in China" over three nights and four days from November 28 through 30.

During their four-day itinerary, the expedition members visited Univera's Aloe farm on Hainan Island, the largest of its kind in Asia, and tried their hands at planting Aloe saplings. They also had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region's diverse cultural offerings. On the second day, November 28, they enjoyed the performances of Korea's foremost Hanryu stars, including Kang Ta, TVXQ, Cheon Sang Ji Hee, The Grace, Super Junior, and Zhang Li Yin, who were invited to the 10-year anniversary celebration of Wanning city in Hainan Province.

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8 유니젠 워크숍



지난 9월14일부터 15일까지 1박2일간 경기도 양평에서 2006년 유니젠 워크숍이 실시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Discussion, Education, Team Building 3개의 파트로 구분되어 진행됐다. 토론 세션에서는 유니젠의 현재와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미래에 대해 진지하고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으며, 교육 세션에서는 회의 문화와 마인드 맵핑(Mind Mapping)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팀빌딩 세션에서는 용문산 등산을 통해 단합을 다졌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유니젠 직원들은 소속감을 고취하고 직원들의 생각들을 서로 공유하고 유니젠의 미래를 그려보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Unigen Workshop

The 2006 Unigen Workshop was held from September 14 to 15 in Yangpyeong, Gyeonggi Province. This year's workshop was divided into three parts: Discussion, Education, and Team Building. During the Discussion session, participants engaged in serious and heated conversations on Unigen's present status, its surrounding environment, and its future. During the Education session, lectures were given on the meeting culture and "Mind Mapping." The Team Building session concentrated on promoting solidarity while hiking up Mt. Yongmun. The workshop provided a meaningful opportunity for Unigen employees to deepen their sense of

belonging, share their thoughts, and envision the future of Unigen.

유니베라 미국 / Univera USA

9 유니베라의 경영진의 "WALK THE TALK"



유니베라 미국의 경영진들은 강연을 위해 강행군을 하고 있다. CEO인 Stuart Ochiltree와 사장 겸 CSO인 Stephen Cherniske, 판매 및 마케팅 부사장인 Rich Razgaitis 그리고 Operations 부사장 Wes Huff만큼 유니베라의 비즈니스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유니베라 미국의 경영진들은 Associate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지역에서 관련 미팅이 진행될 경우 미국 어느 곳이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

경영진들이 생각하는 비즈니스는 곧 Associate들의 비즈니스를 의미한다. 이런 기회야말로 Associate들이 잠재 고객들에게 유니베라의 진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Univera LifeSciences™ 만이 가진 장점이자 Associate들의 비즈니스 성장 발판이 될 차별화된 마케팅 방식과 Univera Serve First™ 를 통한 자선 활동 영상을 통해 유니베라가 어떤 회사이며 어떤 신념을 바탕으로 하는지에 대해 소개한다.

Univera Executives Walk the Talk.

And these guys can walk the talk, too. No one knows the Univera business better than our top executives: Chief Executive Officer, Stuart Ochiltree; President and Chief Science Officer, Stephen Cherniske; Executive Vice President of Sales and Marketing, Rich Razgaitis and our new Executive Vice

President of Operations, Wes Huff. Our corporate leaders are committed to helping our Associates grow their business and, to that end, have committed to a rigorous schedule-traveling the country to support them at their regional business opportunity meetings in areas experiencing rapid growth.

These executives mean business - The Associates' Business - and this is the perfect opportunity for our Associates to let their prospects see what Univera is all about.

Meeting Highlights include: the Univera LifeSciences™ advantage, key sales and marketing tools to help support and build your business, and a conversation about culture - who we are and what we believe, including a video that shows firsthand how we are participating in the Univera Serve First™ public charity.

유니젠 미국 / Unigen USA

10 유니젠과 알로콧 Supplyside West 2006 공동 참여



유니젠과 알로콧은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네바다 라스베이거스의 Sands Exposition Center 와 Venetian Resort Casino에서 Supplyside West 국제 트레이드쇼와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Supplyside West는 건강 혁신 재료 관련 세계 최대 전시다. 2005년 대비 19% 증가한 566개의 회사가 참가했으며, 7,200 여명의 사람들이 3일간 교육 컨퍼런스와 트레이드쇼에 참석했다.

ECONET을 대표하여 유니젠 미국 (레이시, 워싱턴), 유니젠 한국 (서울, 한국), 유니베라 라이프 사이언스, 알로콧, 에코넷 그리고 남양에서 모두 참석했다. 유니젠은 Supplside West의 주요 스폰서 중 하나다. 500명이 넘게 참가한 스폰서십 디너에서 유니젠 이름이 조명을 한 몸에 받으며 높게 걸려 있었는데 자랑스럽고 감동적이었다.

시너지 창출을 위해 유니젠과 알로콧은 공동으로 전시 부스를 설치했다. 양사의 세일즈팀과 연구원들은 고객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하면서 개별 제품 라인과 연구 개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부스는 많은 고객들 외에도 지원을 위해 서울에서 온 한국팀들로 북적거렸다.



유니젠은 올 초에 소개했던 특허 신재료인 Uniflavin을 소개했다. 또한 완전한 보완된 유니젠 제품 그룹이 소개되었다. 유니젠 임상실험 상무인 테리 오라일리 박사는 트레이드 쇼의 교육 세션 중에서 '임상실험을 통한 사업 확장과 유지'에 대해 발표했다. 세일즈팀과 연구원들은 에코넷의 홍보 활동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력하였으며, 그 동안 유니젠은 현 고객을 건강식, 제약 그리고 화장품 산업으로까지 확장했다.

알로콧은 심장에 좋은 알로에 음료, 과일 알로에 목욕 소금, 인스턴트 알로에 차 그리고 레모네이드 음료 등의 신제품을 선보였다. 서부 세일즈 매니저 밥 스미스에 의하면 이번이야말로 알로콧의 가장 성공적 쇼 중의 하나였다고 한다. 이 제품라인 소개가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알로콧의 CSO인 켄 존스와 연구 개발 팀원들의 협조에 감사한다. 또한 켄 존스는 알

로콧의 혁신적 Qmatrix® 건조 방법을 소개한 과학 포스터를 선보였다.

Unigen and Aloecorp team up at SupplySide West 2006

Sister companies Unigen and Aloecorp combined efforts to exhibit at the blockbuster SupplySide West International Trade Show and Conference held October 18-20, at the Sands Exposition Center and Venetian Resort Casino in Las Vegas, NV. SupplySide West is the world's largest event for healthy and innovative ingredients. Over 7,200 attended the three-day education conference and tradeshow, with 566 companies exhibiting, a 19 percent increase over 2005.

The ECONET was well represented by attendees from Unigen USA (Lacey, WA), Unigen Korea (Seoul, Korea), Univera LifeSciences, Aloecorp, ECONET and Namyang. Unigen was one of the four major sponsors for SupplySide West. It was both humbling and inspiring to see Unigen's name up in lights during the sponsorship dinner, which was attended by over 500 guests.

In an effort to increase synergy, Unigen and Aloecorp set up adjoining booth displays in the shared exhibit space. Sales teams and scientists from both companies were on hand to discuss individual product lines, advancements in research and development, as well as meet one-on-one with current clients and potential prospects attending the tradeshow. The booth was bustling with not only many prospects and customers, but also our Korean team members, who flew in from Seoul to lend their support.

Unigen featured Uniflavin, its newest proprietary patented ingredient which was introduced earlier

this year. Also highlighted was the full complement of ingredients from Unigen's family of products. Dr. Terry O'Reilly, Unigen's Director of Clinical Trials, gave a presentation on "Growing and Sustaining Your Business with Clinical Trials" during the tradeshow's educational session. Sales staff and scientists teamed up to present the ECONET story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clientele and prospects. And, in the telling of that story, Unigen expanded our existing client base in the nutraceutical, pharmaceutical and cosmeceutical industries.



Aloecorp showcased some of their new product development initiatives, including their cardio aloe drink, fruit and aloe bath salts and instant aloe tea and lemonade drinks. According to Western Sales manager Bob Smith, this was one of Aloecorp's most successful trade shows ever. Special thanks go to Aloecorp's CSO, Ken Jones, and his R & D staff for their support in introducing this new product line. Additionally, Ken Jones represented Aloecorp with a science poster detailing Aloecorp's innovative Qmatrix® drying process.

11 제 9회 유니젠 글로벌 서밋 레이시에서 열리다
에코넷 계열의 연구원과 임원들은 10월 24일~26일간 유니젠 미국이 개최한 제 9회 유니젠 글로벌 서밋 참가를 위해 워싱턴 레이시에 모였다. 첫째, 둘째 날 회의는 Red Lion Hotel에서, 그리고 셋째 날은 레이시의 유니젠 미국 사무실에서 과학, 비즈니스 회의를 가졌다. 서밋 참가자들은 유니젠 미국, 유니젠

한국, 유니베라 한국, 유니베라 미국 알로콧, 에코넷, 남양, 그리고 에코넷 전략 고문단과 유니젠 주요 고객들 중에서 특별히 초대된 게스트들이었다.



연설자들은 글로벌 비즈니스 목표와 실현과제, 판매와 제품 유통경로 주요부분, Phytologix®와 GenoActive 프로젝트 개발, 규제와 QC/QA/GMP 준수에 대한 현황 보고, 새로운 타겟에 대한 접근을 비롯하여 임상 실험 업데이트와 연구 개발 활동 등의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유니베라 한국은 11월 14일 서울에서 개최될 천연 제품 응용에 대한 제 1회 국제 심포지엄 주요 의제에 관해서 발표했다. 유니젠의 10주년 연간 글로벌 서밋은 2007년 봄 유니젠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9th Annual Unigen Global Summit convenes in Lacey



Scientific and executive teams from the ECONET family of companies met in Lacey, WA, October 24-26, to attend the 9th Annual Unigen Global Summit, hosted by Unigen-USA. Days 1 and 2 of the three-day meeting were held at the local Red Lion Hotel, with the Day 3 wrapping up with individual science and business meetings at

Unigen's Lacey offices. Summit participants included representatives of Unigen USA, Unigen Korea, Univera Korea, Univera USA, Aloecorp, ECONET, Namyang and special invited guests, from the ECONET Strategic Advisory Board and top Unigen clientele.

Speakers presented updates on global business goals and objectives; sales and product pipeline highlights; developments in Phytologix® and GenoActive projects; status reports on regulatory and QC/QA/GMP compliance; the approach to novel targets, as well as clinical trial updates and research & development activity. Univera-Korea also presented key topics of discussion for the 1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Applications of natural Products, being held November 14th in Seoul.

Unigen's 10th Annual Global Summit will be held at Unigen-Korea in the Spring 2007.

힐탑가든 / Hilltop Gardens

12 신종 알로에 가든에 작업이 시작되다.



고 이연호 회장을 기념하여 알로에 종자를 심어놓은 가든에 작업이 시작됐다.

Texas Sage (Leucophyllum frutescens), 가막살 나무 (Viburnum tinus) 가 줄지어 심어진 Jelly Palms(Butia capitata), 토종 풀들에 둘러싸인 대 추야자 (Phoenix dactylifera) 와 함께 가든을 둘러

싼 가장 자리의 화단 꼭대기에서 가장 자리까지 가로 질러 심어졌다. 이 가장자리 화단이 대지 내 다른 구역과 알로에 가든을 구분시킬 것이다. 비가 오고 며칠 후면 Texas Sage가 온통 라벤다꽃 천지가 될 것이다.

Work has begun on the new Aloe Species Garden



Work has begun on the new Aloe Species Garden, honoring the memory of Chairman Lee Yeonho.

The berm surrounding the garden has been planted with Texas Sage (Leucophyllum frutescens) and Laurustinus Viburnum (Viburnum tinus), with a row of Jelly Palms(Butia capitata) across the top and ends in a bed with a Date Palm (Phoenix dactylifera) surrounded by native grass. The berm will define the area of the Aloe Garden, screening it from the rest of the property. A few days following a rainfall, the Texas Sage explodes in a brilliant mass of lavender bloom.

13 3분기 직원상



텍사스 라이프포드에서 산토스 살리나스 주니어가 3분기 직원상을 받는다. 산토스는 힐탑가든의 농장 직원이며 12년간 에코넷을 위해 일해왔다. 그는 매우 믿을 만하고 공손하며 예의 바르다. 이 모든 면과 그의 투철한 직업관이 동료 직원들에게 인정을 받은 것이다. 또한 그는 항상 주어진 업무 외에 부가업무에 있어서도 적극적이다. 축하합니다. 산토스!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 팀의 일원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Employee of the 3rd Quarter



Santos Salinas Jr. was selected as Employee of the 3rd Quarter at the Lyford, TX location. Santos is a Farm Worker for Hilltop Gardens and has worked for the ECONET family for over 12 years!! He is very dependable, respectful, and courteous. Because of this, and his work ethic, he has earned everyone's appreciation. Furthermore, he consistently goes above and beyond the call of duty. Congratulations, Santos! We hope to have you on our team for many more years to come!!

알로콥 중국 & 남양 중국 / Aloecorp China & Namyang China

14 알로콥 중국 본 공장과 남양 중국 베라 스파 리조트 기공식

지난 10월 17일 알로콥 중국 본 공장 및 남양 중국 베라 스파 리조트 기공식을 가졌다. 이번 기공식에는 총괄사장님을 비롯하여 에코넷 위크숍 참가자 전

원, 베라 스파 리조트 설계를 담당한 태국의 버냉 (BUNNAG)사,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본 공장은 2007년 9월말 완공하여 10월 1일부터 본 생산에 들어가며 향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 지역에 알로에 원료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 동안 알로콥 미국에서 아시아 시장에 원료를 판매했으나 앞으로는 알로콥 중국에서 재배, 생산, 판매까지 담당할 예정이다.

남양 중국의 주요 사업인 베라 스파 리조트는 특색이 있는 테마를 갖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리조트로 개발할 예정이며, 에코네시안들의 연수 및 위크숍 장소로도 활용될 것이다.

Groundbreaking Ceremony for Aloecorp China's Main Plant and Namyang China's Vera Spa Resort

October 17 was the groundbreaking ceremony for Aloecorp China's main production facility and Namyang China's Vera Spa Resort. The ceremony was attended by ECONET Chairman Bill Lee, everyone who took part in the ECONET Workshop, various government officials, and representatives of Thailand's BUNNAG, the firm entrusted with designing the Vera Spa Resort.

The plant will be completed in late September of 2007 and begin production on October 1. The raw materials produced at the new plant will be distributed throughout the entire Asian region, including Korea. Until now, Aloecorp USA had been in charge of supplying raw materials in the Asian market, but Aloecorp China will now take over the growing, production, and sale of Aloe products in the region.

The Vera Spa Resort, one of Namyang China's

priority projects, will be developed with a distinctive theme as the most beautiful resort in the world. It will also be utilized as a training and workshop venue for ECONETians.

유니젠 러시아 / Unigen Russia

15 안중근 의사 단지동맹비 임시 이전 작업 완료



유니젠 러시아는 11월 23일 아침 9시 30분부터 혹한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농장 인근에 위치한 안중근 의사 단지동맹비 임시 이전 작업을 무사히 마쳤다.

이전까지 안중근 의사 단지동맹비는 외진 곳에 세워져 있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더구나 기념비에 새겨진 문구들은 심하게 훼손되었으며, 기념비를 지탱하던 보조석마저 유실되어 기념비 자체가 기울어가고 있는 심각한 상태였다.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기념비를 이렇게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유니젠 러시아는 발빠르게 블라디보스토크 한국 총영사관에 이런 상황을 전달했으며, 아울러 농장 안에 기념비를 이전하여 보전,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블라디보스토크 한국 총영사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신규호 부영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으며, 기념비의 신속한 이전에 대해 동의했다.

23일 전대완 블라디보스토크 한국 총영사님과 이우영 한국교육개발원장님, 신규호 담당 부영사님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 법인장인 구원모 사장과 함께

이전에 따른 간단한 의식을 올렸으며, 준비된 작업 절차에 따라 무사하게 기념비 임시 이전 작업을 완료했다.

앞으로 기념비는 이전 장소가 확정되면 구체적인 계획 및 보전 방안에 따라 이전한 뒤 영원히 후손들에게 물려줄 하나의 성지로 만들 것이다.



Temporary Relocation of Ahn Jung-geun Monument Completed

On November 23, Unigen Russia carried out the temporary relocation of the Ahn Jung-geun Finger-Severing Pact Monument, located near its farm. The relocation work, which began at 9:30 a.m., was completed successfully despite the bitter cold.

The monument was originally erected in an isolated area, rendering it difficult to ensure proper care and maintenance. The writing inscribed on its surface was severely damaged, and the monument itself was increasingly listing to one side since the supporting stone went missing. The situation had become serious indeed.

Judging that a monument of such historical significance should not be thus neglected, Unigen Russia promptly communicated the situation to the Korean consulate in Vladivostok. It also stated its intention to relocate the monument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farm and provide diligent care and

maintenance. The Korean consulate in Vladivostok acknowledged the gravity of the problem. Vice Consul Gyu-ho Shin personally visited the site and consented to the speedy relocation of the monument.

On November 23, President Won-mo Koo, the head of ECONET's Chinese operations, officiated at a simple ceremony to commemorate the relocation, amid the attendance of Vladivostok Consul General Dae-wan Jeon, Vice Consul in Charge Gyu-ho Shin, and KEDI President Wuyeong Lee. The temporary relocation project was then safely carried out according to plan.

Once the prospective location is confirmed, the monument will be moved in accordance with specific procedures and preservation measures to its new home, where it will become a sacred site to be handed down through the generations.



신입사원 / New Hire



▲ 방지영 사원, 품질혁신팀, 남양/
Jiyoung Bang, Quality Innovation Team, Namyang



▲ 민지희 사원, 교육기획팀, 유니베라 한국/
Jihee Min, Education Planning Team, Univera Korea



▲ 박정호 대리, 영업기획팀, 유니베라 한국/
Jeongho Park, Sales Planning Team, Univera Korea



▲ 브리지 헨닝스, 고객관리팀원, 유니베라 미국/
Breeze Hennings, CSR I, Univera USA



▲ 크리스틴 웬첼, 회계 과장, 유니베라 미국/
Christine Wentzel, Accounting Manager, Univera USA



▲ 에이미 서머스, 그래픽 디자이너, 유니베라 미국/
Amy Summers, Graphics Designer, Univera USA



▲ 사라 러버트, 고객관리팀원, 유니베라 미국/
Sarah Rubbert, CSR I, Univera USA



▲ 데이브 포한, 그래픽 디자이너, 유니베라 미국/
Dave Forhan, Graphics Designer, Univera USA



▲ 홀리 파크, 크리에이티브 서비스프로젝트 매니저, 유니베라 미국/
Holly Park, Project Manager for Creative Services, Univera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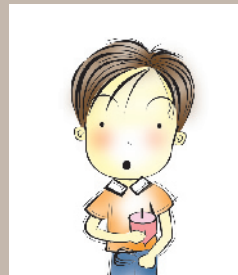
▲ 샌딕 낸디, 유기화학자, 유니젠 미국/
Sandip Nandy, Organic Synthetic Scientist, Unigen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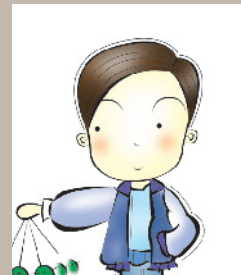
▲ 제니퍼 호만, 연구원,
유니젠 미국/
Jennifer Homan, Research
Associate, Unigen USA



▲ 핑 지아오, 천연 제품 화학자,
유니젠 미국/
Ping Jiao, Natural Product
Chemist, Unigen USA



▲ 데셴 왕, 분석 화학자,
유니젠 미국/
Desheng Wang, Analytical
Chemist, Unigen USA



▲ 데이비드 멘러브,
지역 판매 과장, 유니젠 미국/
David Menlove Regional Sales
Manager, Unigen



▲ 로드니 스톰,
지역 판매 과장, 유니젠 미국/
Rodney Storm, Regional Sales
Manager(East Coast), Unigen USA



▲ 에드윈 프랭크, 농장 매니저,
힐탑가든/
Edwin Franke, Assistant Farm
Manager, Hilltop Gardens



▲ 호세 구띠에레스, 정원사,
힐탑가든/
Jose Gutierrez, Landscape
Gardener, Hilltop Gardens

New Hire

승진 & 부서이동 소개/ Promotions & Transfers



◀ 이세현, 임원 행정 보조, 에코넷 미국 ⇨
행정 관리 매니저, 에코넷 미국
Sean Lee, Executive Administrative Assistant,
ECONET USA ⇨ Executive Administrative
Manager, ECONET USA



◀ 타라 아담스, 프론데스크 코디네이터,
에코넷 미국 ⇨ 인사부 어시스턴트, 에코넷 미국
Tara Adams, Front Desk Coordinator
ECONET USA ⇨ Human Resources Assistant,
ECONET USA



◀ 타라 모세즈, 고객관리팀원, 유니베라 미국 ⇨
경리 직원, 유니베라 미국,
Tara Moses, CSR II, Univera USA ⇨
Accountant Clerk, Univera USA

Promotions & Transfers

경조사 소식 / Congratulations and Condolences

남양 / Namyang

◆ 축하합니다.

- 지난 12월 3일 영업팀 김태옥 사원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 Congratulations

- Felicitations to Taek Kim (Sales Team) on his wedding, which took place on December 3.



유니베라 한국 / Univera Korea

◆ 축하합니다.

- 1) 지난 10월 22일 서울영업팀 이동영 대리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 2) 지난 11월 17일 영업기획팀 박소운 주임의 예쁜 딸 출산을 축하합니다.

- 3) 12월 9일 신흥 대리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은 참석바랍니다.

- 일시 : 2006년 12월 9일 오후 12:30
- 장소 : 역삼 리더스클럽

◆ Congratulations

- 1) Felicitations to Assistant Manager Dongyeong Lee (Seoul Sales Team) on his wedding on October 22.

- 2) Congratulations to senior staff member Soyoon Park (Sales Planning Team) on the birth of her lovely daughter on November 17.

- 3) The wedding of Assistant Manager Heung Shin will take place on December 9. Please come and celebrate with him on his special day.

- Date and Time: December 9, 2006 at 12:30 p.m.
- Location: Leader's Club, Yeoksam-dong

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 축하합니다.



- 지난 9월30일 경영지원본부 시설관리팀 김영선 사원의 아들 김민재 군의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지난 11월5일 경영지원본부 총무인사팀 강승원 팀장의 조모 상이 있었습니다.

Congratulations and Condolences

◆ Congratulations

• On September 30, Yeongseon Kim (Facility Management Team, Management Support Division) celebrated the first birthday of his son, Minjae Kim. Congratulations!

◆ Please accept our deepest condolences

• The grandmother of Team Manager Seungwon Kang (General Affairs & Human Resources Team, Management Support Division) passed away on November 5. We offer our deepest condolences.

유니베라 미국 / Univera USA

◆ 축하합니다.

1) 유니젠 미국에 마이크 잔 연구원의 자녀 출산을 축하합니다. 10월 31일 올림피아에서 딸 레이첼 마이크 잔이 태어났습니다.

2) 지난 11월 9일 다이아몬드 지원팀에 애슬리 & 물류센터 감독 사테가 새벽 5시 45분에 아들 티앤크 사카리아를 출산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 Congratulations

1) Congratulations to Mike Zahn, Research Associate, Unigen USA, on the birth of his lovely daughter. Please welcome Rachel Mike Zahn, born 10/31/06 at 1:12am in Olympia!



2) Ashley & Sete had their baby boy 11/9/06 at 5:45am. Please help us welcome baby Tiancum Sakar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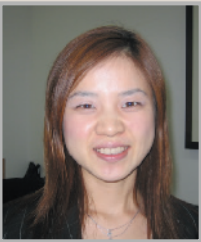
Congratulations and Condolences

생일자 소식 12 ~ 2007. 01

Birthday in December & January 2007

Happy Birthday

에코넷 한국
ECONET Korea



◆ (1/2) 안현진
Hyunjin Ahn



◆ (1/5) 윤석훈
Seokhoon Yoon



◆ (1/18) 김미자
Mija Kim



◆ (1/21) 김정표
Jungpyo Kim



◆ (1/21) 이재은
Jaeun Lee



◆ (1/27) 이재은
James J. E. Lee

남양 / Namyang



◆ (12/5) 이시찬
Sichan Lee



◆ (12/5) 금경덕
Kyongduk Kum



◆ (12/9) 장금순
Kumsun Jang



◆ (12/18) 표한중
Hanjong Pyo



◆ (12/20) 김경섭
Kyungsup Kim



◆ (12/20) 김한철
Hancheol Kim



◆ (12/27) 정찬대
Chandae Jung



◆ (12/29) 최시옥
Siock Choi



◆ (12/31) 신진숙
Jinsuk Sin



◆ (1/2) 김복순
Boksun Kim

Happy Birthday



◆ (1/2) 김순예
Sunrye Kim



◆ (1/2) 장순임
Sunlim Sang



◆ (1/2) 김정임
Jungim Kim



◆ (1/6) 김규홍
Kyuhong Kim



◆ (1/9) 신복현
Bokhyun Sin



◆ (1/17) 박정숙
Jungsuk Park



◆ (12/8) 김동식
Don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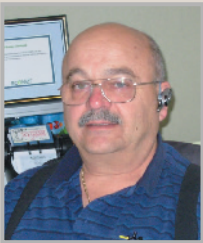
◆ (12/22) 우성식
Sungsick Woo



◆ (1/4) 최재영
Jaeyoung Choi



◆ (12/8) 손병일
Byung Sohn



◆ (1/14) 론 님
Ron Gnyp



◆ (1/19) 김월수
Wolsoo Kim



◆ (1/20) 방기만
Giman Bang



◆ (1/25) 신중현
Junghyun shin



◆ (12/9) 이창수
Changsoo Lee



◆ (12/10) 석미경
Mikyung Seok



◆ (1/15) 티모시 우드
Timothy Wood



◆ (1/15) 커티스 브라이언
Curtis Bryan



◆ (1/26) 밥 풀턴
Barb Fulton



◆ (1/28) 김미선
Misun Kim



◆ (1/31) 앤 칼릭
Anne Kalich



◆ (12/23) 조준용
Junyoung Cho



◆ (12/23) 이주연
Jooyoun Yi



◆ (12/25) 백승우
Seungwoo Baek



◆ (12/26) 최진영
Jinyoung Cho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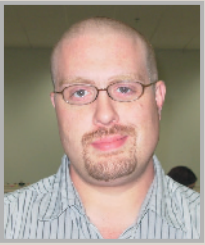
◆ (1/1) 유성곤
Seongkon Yoo



◆ (1/14) 김민정
Minjung Kim



◆ (12/4) 니콜라스 포먼
Nicholas Foreman



◆ (12/15) 제이슨 데이비스
Jayson Davis



◆ (12/15) 케틀린 힐러리
Katelyn Hilleary



◆ (12/15) 크리스타 힐러리
Krista Hilleary



◆ (12/16) 안젤라 덴마이어
Angela Danmeyer



◆ (12/22) 키타 터렐
Quita Terrell



◆ (1/18) 김정훈
Junghoon Kim



◆ (1/18) 박석신
Seokshin Park



◆ (1/28) 임미정
Mijoung Lim



◆ (1/31) 김태신
Taesin Kim



◆ (12/7) 어윤정
Younjung Eo



◆ (12/26) 블레이크 마이너
Blake Miner



◆ (12/27) 에шли 사카리아
Ashley Sakaria



◆ (12/30) 리아 마틴
Lea Martin



◆ (12/31) 샌드라 소콜로브스키
Sandra Sokolowski



◆ (12/31) 스테이시 토마스
Stacy Thomas



◆ (1/5) 레이브 캠프벨
Raven Campbell



◆ (1/6)
보니 앤더슨
Bonnie Anderson



◆ (1/7)
샬린 켈럼
Charleen Kellum



◆ (1/7)
사테 사카리아
Sete Sakaria



◆ (1/14)
데이비드 포한
David Forhan



◆ (1/16)
미타 잘렉
Mirtha Jalek



◆ (1/17)
마싸 존슨
Martha Johnson



◆ (1/18)
멜라사 스토리
Melissa Story



◆ (1/18)
샌드라 닐
Sandra Ne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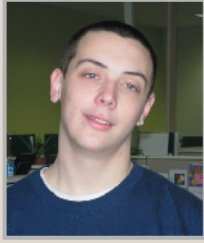
◆ (1/23)
스티븐 마쉬
Stephen Marsh



◆ (1/28)
프레스턴 킬러
Preston Keeler



◆ (1/29)
줄리 가리슨
Julie Garrison



◆ (1/29)
에릭 밀러
Eric Miller



◆ (1/31)
글레나 톰슨
Glenna Thompson



◆ (12/11)
로드니 스톰스
Rodney Storm



◆ (12/26)
메스핀 이맘
Mesfin Yimam



◆ (1/27)
지푸 자오
Jifu Zhao



◆ (12/11)
환 카스티요
Juan Castillo



◆ (12/22)
로사 온티베로스
Rosa Ontiveros



◆ (1/10)
로베르토 에스피노자
Roberto Espinoza



◆ (1/19)
에스테반 구즈만
Esteban Guzman



◆ (1/31)
마리솔 헤르난데즈
Marisol Hernandez



◆ (1/29)
브렌튼 라일리
Brenton Riley

Happy Birthday



짧은 사람 사진 응모 당첨자 소개!

최우수상, 우수상에 당첨되신 세분께는 사진속 주인공과 제출하신분이 상금을 반반씩 나눠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호에 상금 소개가 잘못 소개된점 사과드립니다. 이번호는 연말 이벤트로 이미 각 사 기자분들께 상금을 공지했었으나 지난 10월호에 소개가 잘못되었습니다.



최우수상 누가 주진모 일까요?

사진속의 오른쪽 주인공이 교육기획팀 최고의 꽃미남 전익표 사원입니다. 더 이상의 영화배우 주진모와 똑 같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주진모 보단 못하지만 포토샵 작업을 25분 투자하여 열심히 만들어 봤습니다.

제출자 : 최영재 사원, 교육기획팀, 유니베라 한국 (500,000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드립니다)

First Prize Winner Who Is the Real Jinmo Joo?

The person on the right is the Adonis of the Education Planning Team, Ikpyo Jeon. I can't think of anyone who could look more like the actor Jinmo Joo, although Jinmo Ju might have a slight edge over him! I invested 25 minutes of Photoshop work to produce the picture.

Submitted by Youngjae Choi, Education Planning Team, Univera Korea (A gift certificate worth \$500 will be awarded)

Announcing the Winners of the Look-Alike Photo Contest!

The cash prize for each of the three first and second prize winning entries is to be divided equally between the person in the photo and the person who submitted the photo. Also, we apologize for the errors regarding the amounts of the cash prizes in the previous issue. The reporters at the various companies have already been notified of the correct cash prizes for the current issue's year-end event, but the cash prizes were incorrectly stated in the October issue.



우수상

옆집 아줌마 전원주 vs 아기 전원주

옆집아줌마 같은 탤런트 전원주씨와 저희 딸이 꼭 닮았습니다. 누가보면 전원주씨 손녀줄 알겠죠?

제출자 : 김진영 대리, 품질혁신팀, 남양 (250,000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드립니다)

Second Prize Winner Next-Door Neighbor Wonju Jeon vs. Baby Wonju Jeon

Wonju Jeon, the actress who feels like a next-door neighbor, and my daughter look like peas in a pod. One might even think she was Wonju Jeon's granddaughter!

Submitted by Jinyoung Kim, Asistant Section Manage, Quality Innovation Team, Namyang (A gift certificate worth \$250 will be awarded)



우수상 우리 아버지와 Earl

우리 아버지 (존 밴 고컴) 의 35살 때 사진을 “내 이름은 Earl” (코믹 TV 드라마) 의 Earl과 비교해 본 것이다. 태어난 지 얼마되지 않은 내 남동생과 침대에 누워있을 때 찍은 사진인데 아버지가 이렇게 수염이 덩수룩한 모습은 좀처럼 보기 드물다.

제출자 : 로비 밴 고컴, 웹 개발자, 에코넷 미국 (250,000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드립니다)

Second Prize Winner My Dad and Earl

Here is my Dad (John Van Gorkom) at age 35 compared to Jason Lee (as Earl from my name is Earl). He was lying in bed with my little brother days after he was born. It is one of the rare times that my father has a five-o-clock shadow.

Submitted by Robbie Van Gorkom, Web Developer, ECONET USA (A gift certificate worth \$250 will be awarded)



아차상 1 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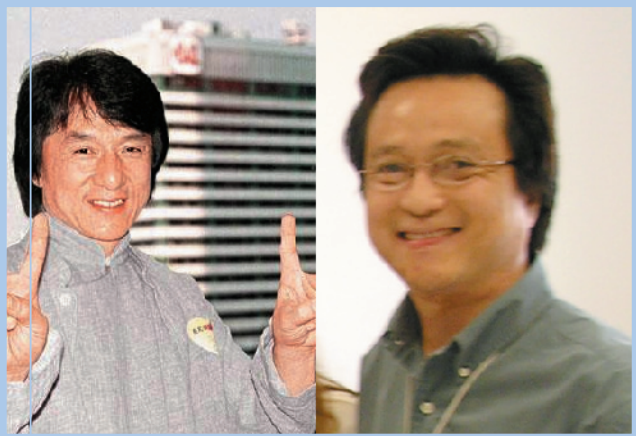
치 박사와 이재은 상무가 하이난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다. 이들은 이미 미국 유니젠에서는 “오래전에 잃어버린 형제”로 알려져 있다.

제출자 : 리네 버틀러, 임원보조, 유니젠 미국 (베라스파 3종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Just Missed Award 1 Brothers

This picture was taken when Dr. Jia and Mr. Lee spent time together on Hainan Island. They are already known as long lost brothers in Unigen.

Submitted by Linnea Butler, Executive Assistant, Unigen USA (A gift set of three Vera Spa products will be awarded)



아차상 2

김수겸(Joseph Kim) 상무님과 성룡의 이미지가 정말 많이 닮았죠?

제출자 : 블랑카 코르테즈, 생산지원팀장-총무, 알로콧 미국 (베라스파 3종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Just Missed Award 2

Don't you think Managing Director Joseph Kim and actor Jackie Chan have a really similar image?

Submitted by Blanca Cortez, Office Administration Supervisor, Aloecorp USA (A gift set of three Vera Spa products will be awarded)



아차상 3

‘푸시캣 돌’의 니콜 쉬어징어가 미셸 로저스와 닮았다? 내 사촌 미셸과 ‘푸시캣 돌’이라는 이름의 그룹에 있는 니콜 쉬어징어의 사진이다. 정말 많이 닮았다고 생각한다.

제출자 : 안젤라 덴마이어, 고객관리팀원, 유니베라 미국 (베라스파 3종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Just Missed Award 3

Pussycat Doll Nicole Scherzinger looks alike Michelle Rodgers? Here is a picture of my cousin Michelle and a girl named Nicole Scherzinger, she is in the music group called the Pussycat dolls. I think they look a lot alike.

Submitted by Angela Danmeyer, Customer Care Representative, Univera USA (A gift set of three Vera Spa products will be awarded)

아차상 4 가장 작고 귀여운 코끼리

아주 작고 순진한 여자아이를 튼튼하고 강한 동물 Costume을 입혔다.코끼리를 안아주고 싶다고 느꼈던 것은 이 사진을 봤을 때가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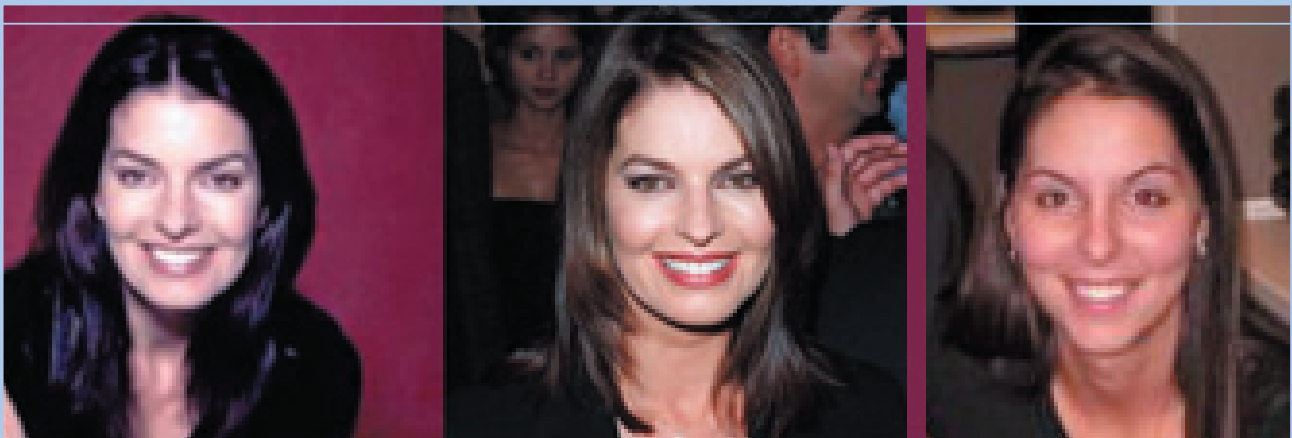
제출자 : 멜리사 스토리, 커미션 담당 직원, 유니베라 미국 (베라스파 3종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Just Missed Award 4 Smallest and Cutest Elephant

We took someone so small and innocent and put her into a costume of an animal so strong and powerful. I saw this picture and it is the first time I ever wanted to cuddle an elephant.

Submitted by Melissa story, Commissions Clerk, Univera USA (A gift set of three Vera Spa products will be awarded)



아차상 5 줄리와 셀라

셀라는 자매들(1991-96), 다시한번(1999-2002) 등의 TV 드라마로 알려진 여배우이다. 도망자에서 죽임을 당하는 해리스 포드의 부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줄리 가리슨은 유니베라 미국의 커미션 담당 매니저이다. 이 두 사진은 정말 많이 닮았다.

제출자: 사란 펠, 유통 코디네이터, 유니베라 미국 (베라스파 3종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Just Missed Award 5 Julie and Sela

Sela Ward is an actress who is known for TV dramas like Sisters (1991-96), and Once and Again (1999-2002). She also played Harrison Ford's murdered wife in the movie The Fugitive. Julie Garrison is Commissions Manager at Univera USA. These two really look alike.

Submitted by Sarann, Distribution Coordinator, Univera USA (A gift set of three Vera Spa products will be awarded)

ECONET Halloween

에코넷은 10월 31일 화요일 할로윈을 맞아 직원들이 할로윈 복장을 할 수 있도록 그 날을 “캐주얼 데이” 로 지정했다. 또한 직원의 자녀들이 3:30-5:00 pm 사이에 회사를 방문해서 “Trick or Treat” 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에코넷시안들이 귀여운 Costume을 입은 어린이들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제니 킴(인사 대표, 에코넷 미국)과
타라 애덤스(인사 보조 및 프론트 데스크 코디네이터, 에코넷 미국)
Jenny Kim (ECONET USA, HR Representative) & Tara Adams
(ECONET USA, HR Assistant-Front Desk Coordinator)



멜리사 스토리(커미션 사원, 유니베라 미국)와 딸
Melissa Story (Univera USA, Commissions Clerk) and her
daughter



커티스 브라이언(IT 상무보, 에코넷 미국)과 자녀
Curtis Bryan (ECONET USA, IT Director) and his son and
daughter



데이브 콜먼(DBA 프로그래머, 에코넷 미국)의 두 딸들
Dave Coleman (ECONET USA, DBA Programmer)'s
two daughters

Halloween ECONET

In recognition of Halloween falling on Tuesday, October 31st, ECONET designated this day to be a ‘casual dress’ day to allow our employees wishing to participate the opportunity to dress in costume. ECONET also invited employees’ children to come in between 3:30-5:00 pm to Trick or Treat at the facility. It was a great treat for all ECONETIANS to see the children in their cute little costumes.



션 리(행정 관리자, 에코넷 미국)
Sean Lee (ECONET USA, Executive Administrative Manager)



스티븐 체니스키(사장 및 CSO, 유니베라 미국)와 자녀
Stephen Cherniske (Univera USA, President and CSO) and his
son and daughter



데이브 내쉬(캐나다 지역 영업마케팅 상무보, 에코넷 미국)의 아들과 부인
Dave Nash (Univera USA, Director of Sales and Marketing,
Canada)'s son and wife



더그 린치(영업마케팅 부사장, 유니젠 미국)와 두 딸들
Doug Lynch (Unigen USA, VP Sales and Marketing) and his two
daughters

ECONET Halloween



제이슨 우드(영업 코디네이터, 유니베라 미국)와 아들
Jason Wood (Univera USA, Sales Coordinator) and his son



줄리 개리슨(커미션 매니저, 유니베라 미국)과 딸
Julie Garisson (Univera USA, Commissions Manager) and her daughter



프레스턴 킬러(제품개발 과장, 유니베라 미국)
Preston Keeler (Univera USA, Manager of Product Development)



키타 테렐(바이어, 유니베라 미국)과 아들
Quita Terrel (Univera USA, Buyer)'s son

Halloween ECONET



레이븐 멜린(사내 회계사, 유니베라 미국)과 딸
Raven Meline (Univera USA, Staff Accountant) and her daughter



Razgaitis family
라즈가이티스 가족



타라 애덤스(인사 보조 및 프론트 데스크 코디네이터, 에코넷 미국)
Tara Adams (ECONET USA, HR Assistant-Front Desk Coordinator)



테리 오라일리(임상실험팀 상무보, 유니젠 미국)
Terry O'reilly (Unigen USA, Director of Clinical Research)

12월호 퀴즈 & 10월호 당첨자 발표

지난 호 퀴즈정답 (리니시에, 파이토 로직스, 파이토 로직스)

- ▶ 지난호 퀴즈 당첨자 (상품으로 리니시에 2중세트를 드립니다.)
 - 박정선, 화장품 생산팀, 남양
 - 김정은, 품질혁신팀, 남양
 - 니콜레 랄슨, 다이아몬드 지원팀, 유니베라 미국
- ▶ 지난 10월호 베스트 원고상! (상품으로 200,000원(\$200)이 수여됩니다.)
서번트 리더십 테마 컬럼 - 에코넷한국 김남규(Namkyu Kim)팀장님께 베스트 원고상을 드립니다.
서번트 리더십 테마 컬럼은 에코네시안들에게 에코넷의 경영철학과 윤리의 기본이 되도록 2006년 1월 ~ 12월까지 테마별로 전달해 주는 코너였습니다.
- ▶ 사진공모 이벤트 당첨자 소개는 94page에 있습니다.
지난 10월호에 상금 소개가 잘 못 나갔습니다. 이미 각 사의 기자들을 통하여 연말 이벤트로 최우수상 1명에 500,000원, 우수상 2명에 각각 250,000원으로 공지해 드렸습니다.
- ▶ 2007년 2월호에는 2007년 새해를 맞아 의미있는 사진을 사연과 함께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1등 : 150,000원 상품권 (1명)
 - 2등 : 100,000원 상품권 (1명)
 - 3등 : 50,000원 상품권 (1명)

12월호 ECONET Way 퀴즈!

2006 서번트 리더십 테마 컬럼을 월별로 소개했었는데 1~12월까지의 주제를 제출해 주시는 분께는 리니시에 3중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응모 바랍니다.

- ▶ 응모하실곳 : kaoh@univera.com

December Quiz and Winners of the October Quiz

Answers to the August 2006 quiz (L'initie, Phyto Logix, Phyto Logix)

- ▶ Winners of the October Quiz (L'initie gift sets will be awarded to the winners.)
 - J.S Park, Production Technology Team, Namyang
 - Jeongeun Kim, Quality Innovation Team, Namyang
 - Nicole Larsen, Diamond Support Team, Univera USA
- ▶ Winner of the October Best Article Contest! (A cash prize of 200,000-won (\$200) will be awarded)
Themed Column on Servant Leadership - The award for Best Article goes to Team Manager Namkyu Kim of ECONET Korea.
The Themed Column on Servant Leadership was designed to convey the basic principles of ECONET' s management philosophy and ethics to ECONETians by presenting a different theme each month from January through December of 2006.
- ▶ The winners of the October photo contest are announced on page 94
The cash prizes were incorrectly stated in the October issue. The cash prizes for the year-end event have been announced through the reporters at the various companies as 500,000 won for the first prize winner and 250,000 won for each of the two second prize winners.
- ▶ For the February 2007 issue, please submit photographs of significance for the New Year along with the stories behind them.
 - First prize: gift certificate worth 150,000 won (1 person)
 - Second Prize: gift certificate worth 100,000 won (1 person)
 - 3rd prize: gift certificate worth 50,000 (1 person)

Quiz for the December issue of ECONET Way

In 2006, the Themed Column on Servant Leadership introduced a different theme each month. L'initie gift sets will be awarded to those who send in all twelve themes from January to December. We invite your submissions!

- ▶ Please send answers via e-mail (SeanL@econetwest.com)



We strongly encourage active participation by all members of the ECONET family.

함께 만드는 ECONET Way

에코네시안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감명깊게 읽은 책, 기억에 남는 공연, 좋은 추억이 된 여행, 자신만의 에세이 등 자유롭게 다양한 소재와 주제의 원고를 보내주세요. ⇨ kaoh@univera.com

1. 이번호에서 가장 흥미롭고 유익했던 기사는 무엇입니까?
2. '에코넷웨이' 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는 무엇인가요?
3. '에코넷웨이' 에 전하고 싶은 의견이나 제안을 적어 주십시오.
4. 참여하고 싶은 코너나 추천하고 싶은 사우를 적어주세요.

Let's join the ECONET Way

ECONET Way is awaiting your participation.
Please contribute articles on any topic, such as your favorite book, an unforgettable performance, a memorable trip or a personal essay.
Your contribution would be deeply appreciated. ⇨ SeanL@econetwest.com

1. Which article did you find most interesting or useful in this month's issue?
2. What would you like to read in future issues of ECONET Way?
3. Please submit any comments or suggestions you have for ECONET Way.
4. Kindly suggest a section to which you'd like to contribute or a colleague you'd like to recommend.



에코넷웨이에 바란다 / Story Suggestions for ECONET Way

에코네시안 여러분!

작은소식이라도 각 사의 기자분들께 아래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기사화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Suggestions for ECONET Way!”

Please e-mail the latest news to your company’s reporter listed below. No matter how trivial the item, your updates will be very helpful in assembling the next issue. We appreciate your participation.

에코넷 한국 / ECONET Korea

오경아 대리, 비서팀, kaoh@univera.com
KyoungAh Oh, Assistant Manager, Secretary Team

남양 / Namyang

최순미 대리, 경영지원본부 경영기획팀, smchoi@namyangglobal.com
Sunmi Choi, Managemnet Support Office

전영숙, 생산본부 생산기술팀, et2388@namyangglobal.com
Youngsuk Jun, Production Technology Team

유니베라 한국 / Univera Korea

박정아 팀장, 고객지원팀, aloever@univera.com
Jeong Ah Park, Team Manager, Customer Service Team

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최재영 차장, 마케팅개발관리, jychoi@unigen.net
JaeYoung Choi, Manager, Marketing

장미라, 경영지원본부, happycode@unigen.net
Mira Jang, Managemnet Support Headquarters

에코넷 미국 / ECONET USA

이세현, SeanL@econetwest.com
Sean Lee, Executive Administrative Assistant

알로콧 미국 / Aloecorp USA

김수겸 상무, 알로콧 생산관리, joseph@aloecorp.com
Joseph Kim, COO of Aloecorp Operations

유니베라 미국 / Univera USA

손병일 차장, ByungS@econetwest.com
Byung Sohn, Financial Services Manager

유니젠 미국 / Unigen USA

신상현 과장, Sangs@upil.com
Sang H. Shin, Account Manager

알로콧 중국, 남양 중국 / Aloecorp China, Namyang China

송운섭, 하이난 알로콧 & 남양 총경리 비서, yoonsup21@hanmail.net
Yoonsup Song, Secretary of Hainan Aloecorp & Namyang

유니젠 러시아 / Unigen Russia

허영문 대리, ympost@hanmail.net
Youngmoon Heo, Assistant Manager

남양 / Namyang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370-92 ☎ : 365-850
370-92 Yongjeong-Ri, Chopyeong-Myon,
Chinchon-Kun, Chungbuk, 365-850, Korea
Tel : (043)532-5144, Fax : (043)532-5328
www.namyangglobal.com

에코넷 한국 / ECONET Korea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302-4 에코넷센터 ☎ : 133-120
ECONET CENTER 302-4, Sungsu-dong 2- ga,
Sungdong- gu, Seoul, Korea
Tel : (02)460-8865, Fax :(02)467-9988

유니베라 한국 / Univera Korea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302-4 에코넷센터 ☎ : 133-120
ECONET CENTER 302-4, Sungsu-dong 2- ga,
Sungdong- gu, Seoul, Korea
Tel : (02)460-8865, Fax :(02)467-9988
www.univera.com

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충남 천안시 병천면 송정리 200-1번지 ☎ : 330-863
#200-1, Songjung-Ri, Byeongcheon-Myeon,
Cheonan-Si, Chungnam 330-863, Korea
Tel : (041)529-1510, Fax : (041)529-1599
www.unigen.net

에코넷 미국 / ECONET USA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 98516
Tel : (360)486-8300, Fax : (360)413-9185

유니베라 미국 / Univera USA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 98516
Tel : (360)486-7500, Fax : (360)413-9150
www.universalifesciences.com

유니젠 미국 / Unigen USA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 98516
Tel : (360)486-8200, Fax : (360)413-9135
www.unigenpharma.com

알로콧 미국(생산) / Aloecorp USA (Production)

61/2 Miles North of La Villa On FM 491
Lyford, Texas 78569 U.S.A
Tel : (956) 262-2176 Fax : 956-262-8113
www.aloecorp.com

알로콧 미국(영업) / Aloecorp USA (Sales)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 98516
Tel : (360)486-7400, Fax : (360)413-5036
www.aloecorp.com

알로콧 중국, 남양 중국 / Aloecorp China, Namyang China

Room #1108, Haikou International Commercial Centre, No.38,
Datong Road, Haikou, Hainan, China - Zip Code : 570102
Tel : (898)-6674-5400, Fax : (898)6674-3400

유니젠 러시아 / Unigen Russia

103-A 4th Floor, Okeansky Prosect,
Vladivostok, Russia,690002
Tel: 7-4232-42-20-95, Fax : 7-4232-42-13-36

에코넷 가족 / ECONET Family



